

규슈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꿈꾸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 목 차

<b>답사일정표</b>			2
<b>피해와 가해 경험의 기억 사이에서</b>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① 정윤주		4
<b>토마스 글로버와 나가사키 젊은 그들, 조슈 5인</b> _나가사키 구라바엔	② 이송은		19
<b>준비된 이가 기회를 잡는 법!</b> <b>일본 도자기를 통해 본 17-18 세기</b> <b>동아시아 국제정치</b> _규슈 도자기박물관	③ 김도현		37
<b>역관 김지남의 천하질서관</b> _한일교류박물관	④ 전재은		57
<b>시모노세키조약의 비밀</b> _일청강화기념관	⑤ 손상용		77
<b>새로운 듯, 새로울게 없는 시진핑</b> <b>외교사상</b>	⑥ 강애리		101

## 답사일정표

### 12 월 26 일(수)

08:00	인천공항 출발
09:20	후쿠오카공항 도착
12:00 ~ 13:00	점심 식사
13:30 ~ 14:30	원폭자료관
15:00 ~ 16:00	데지마
16:30 ~ 17:30	구라바엔
17:30 ~ 18:30	저녁 식사

### 12 월 27 일 (목)

09:30 ~ 10:00	도산신사
10:00 ~ 11:00	규슈 도자기 박물관
11:30 ~ 13:00	점심 식사
14:00 ~ 15:00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16:30 ~ 17:30	한일교류박물관
19:00 ~ 20:00	저녁 식사

### 12 월 28 일 (금)

10:30 ~ 11:30	일청강화기념관
11:30 ~ 13:00	점심 식사
14:30 ~ 17:00	자유 시간
21:05	후쿠오카 공항 출발
22:35	인천공항 도착

##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피해와 가해 경험의 기억 사이에서

##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정운주

서울대학교

### 들어가며

사랑방 11 기 규슈 답사의 첫 답사지는 나가사키에 위치한 원폭자료관이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2 시간 동안 첫 번째 답사지인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원폭자료관으로 향하는 길에 발표와 답사를 통해 만나게 될 1945년 ‘그 날’의 역사에 설레면서도 약간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향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하영선 선생님과 국제정치학의 역사와 계보를 배우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국제정치학은 결국 평화를 향한 사람과 국가 간의 관계 맺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제국주의와 그리고 이후 냉전 세계질서의 중심에 있는 원자폭탄을 국제정치학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이 인류 사회에 평화를 뿌리내리는 데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폭자료관을 주제로 첫 발제와 답사를 진행하게 된 저의 마음은

설렘과 동시에 다소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원폭 투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지금까지의 저의 공부와, 답사를 통해 만나볼 일본이 바라보는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그들 일본을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21세기 사랑방의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우리는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으로 향하였습니다. 답사는 크게 원폭 자료관, 나가사키 평화공원, 그리고 원폭조선인 피해자 추모비의 방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원폭 자료관으로 향하는 길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떨어진 원자폭탄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해 6만 6천 명의 일본인들이 폭발과 이후 화재로 사망하였고 3일 후엔 나가사키의 도시에 떨어진 폭탄으로 4만

명이 즉사하였습니다. 동시에 원자폭탄은 미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였고, 세계대전을 종료시키고 이후 냉전시대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일본의 피폭으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당시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 비자발적 광복을 맞게 되고 한반도는 냉전의 격전지가 되고 맙니다.



▲ 원폭자료관에 전시된 시계.  
원폭이 투하된 시간에 멈춰있다.

원폭자료관의 첫 번째 전시물도 바로 1945년 8월 9일 오전 11:02, 원자폭탄이 투하된 시간에 멈춰있는 낡은 시계였습니다. 그날의 비극을 일본의 관점에서 풀어낸 원폭자료관을 관람하면서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세 가지 관점을 가진 상태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미국의 원폭 투하는 전쟁을

끝내는 데에 필연적인 장치였다는 전통주의적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이에 반하여 원폭투하가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의 수정주의적 관점, 세 번째 관점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절충시킨 중도의 관점(Middle ground view)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관점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폭투하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숨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까지 역사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수정주의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트루먼의 친필 편지들과 1979 년 발견된 포츠담 일기(Potsdam diary)로부터 미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미국의 전후 질서 재편의 욕심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뜬 후, 그를 뒤이어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인테림 커미티(Interim Committee)을 구성하여 맨해튼 프로젝트의 주요 인물 28 명과 함께 논의하여 원자 폭탄 사용 결정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테림 커미티는 원자 폭탄의 투하를 결정하고 그 정당성을 심의한 실질적인 기구로 기능하였습니다. 인테림 커미티에서는 5 월 31 일 회의를 통해 미국이 핵무기의 우위를 점하면서 독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 년 6 월 1 일 위원회에서 일본에 대하여 사전 경고 없이 일본에 대하여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고 없이 폭탄을 투하하였을 때 위력이 더욱 강력할 것이고, 미국이 핵 제조를 위한 생산하는 산업이 소련에 비해 3 년에서 10 년 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핵폭탄 투하를 설득하였고, 인테림 커미티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6 월 21 일 인테림 커미티에서 일본 내에서도 군수 산업이 활발한 지역에 대해 2 개의 타겟 지역을 설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트루먼의 행보는 세계 대전 후를 설계하고 예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후 문제 해결을 구체화하는 데에 있어 미국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대국들로 이루어진 대일본 연합은 동맹의 끈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국제 정세 지형도를 그리는데 나라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전후 질서를 주도하는 데에 있어 미국에 가장 큰 미래의 적은 현재의 동지인 소련이었습니다. 이런 국제정치적 배경에서 미국이 원자 폭탄을 투하한 이유는 소련의 군력에 대하여 미국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고 학자 가르 알페로비츠(Gar Alperovitz)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전쟁터 그 자체였던 유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대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미국이 전쟁터로 작용하는 등의 크게 불리한 점은 없었지만, 미국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륙을 초월한 지배 원리를 주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상계(思想界)에 영향력을 영향을 미치고 싶어했던 미국은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큰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이러한 열망은 전통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불필요한 원폭투하의 결정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도 존재합니다.

## 머지않았던 일본의 항복

한창 태평양 전쟁 중인 1944년 9월 7일의 일본 천황 칙어에서 천황은 “분노를 새로이 하여 단결을 굳건히 하고 떨쳐 일어나” 전쟁을 지속할 것을 말할 정도로 전쟁의 의지가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일본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었습니다. 1945년 5월 9일에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일본 제국은 전쟁을 고집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국제 정세는 전쟁의 막바지로 흐르며 다양한 동맹과 결탁이 존재하였고, 독일의 포츠담에서 진행된 포츠담 회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포츠담 회담은 소련, 미국, 영국의 지도자 스탈린, 트루먼, 처칠이 독일에서 모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수립하고 방향을 논의한 회담입니다. 포츠담에서의 트루먼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스탈린이 알타에서 약속 한대로 소련이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급박한 1945년 여름을 분석한 하세가와의 소련과 일본을 포함한 다각화 연구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주요 행위자로 분석한 데에서 의미가 있고 간접적으로 수정주의적 입장을 강화합니다.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는데 히로시마 폭탄보다 소련의 참여가 더 중요했다는 하세가와의 분석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투하 이틀 후인 8월 8일 소련 참전이 결합되어 일본의 항복을 이끌었던 것이지만 둘 중에 소련 참전이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참전과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 간 중립 조약의 파기로 인해 일본의 소련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 평화를 모색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수정주의의 견해 중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의 참전을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원자폭탄이라는 극악의 무기를 사용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당시 전시 상황에서 불리한 자신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7월 18일 트루먼의 일기에서 일본 천황 (Jap Emperor)으로부터 평화를 갈구하는 전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월 18일의 트루먼 일기에 의하면 일본 천황으로부터 평화를 바라는 전보(“telegram from Jap emperor asking for peace,”)를 언급하며, 일본 천황이 물러나지 않는 조건 하의 항복을 고려하고 있던 일본의 상황을 트루먼은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군사적 불리함의 부재

미국이 처음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이유는 전쟁 말미에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이 원폭 연구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미국은 서둘러 핵무기를 구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원폭 과학자 Szilard에 의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원폭을 개발하였는데 독일 항복으로 인해 목표가 없어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 정책 결정가들과 과학자들은 독일이 원자 폭탄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 데 반해 독일은 1945년 5월 7일에 항복을 고하였습니다. 그들의 일차적인 목표인 독일에 대항하여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명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폭 연구의 가속화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루먼은 왜 “half a million”의 미국인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본 것일까요? 1955년 출간된 트루먼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는 원폭투하를 “it might cost half a million American lives to force the enemy’s surrender on his homelands”라고 하며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국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원폭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원폭 투하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일본에 항복을 받아내는 수단을 명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6월 18일에 트루먼이 백악관에서 미국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를 만나서 회의를 했을 때 군사 관계자들은 트루먼에게 전쟁 진행을 통한 미국인 사상자들의 수는 “relatively inexpensive”, 즉 큰 피해가 아닐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6월 17일의 트루먼의 일기에는 그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 장군은 일본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민들이 군수 물자의 생산을 돕고 있고, 일본 산업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일본을 침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때 그는 최소 500만 미국인의 목숨이 희생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고민을 한 그는 “there are no civilians in japan”이라 하며 일본에 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통주의가 강하게 주장하는 근거로써,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할 수 없는 방편으로써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도 수정주의는 일본과 독일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은 총 30만 명을 넘지 않았다는 근거로 반박합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주요 전투 지역인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주만의 초기 습격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공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을 통해 경제 성장의 덕을 본 국가입니다. 전쟁을 시작한지 4년도 안 된 기간에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전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국은 철저하게 전쟁에서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간간히 일본의 공습이 존재하였지만, 그것이 미국의 군사나 경제에 크게 타격을 준 사실은 기록으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전시 상황은 기존의 전통주의의 주장과 달리 일본에 대해 서둘러 원폭 투하를 내린 결정이 군사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 또 다른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 원폭조선인희생자추모비에 놓여진 물병의 모습들

원폭 자료관 본관과 나가사키 평화공원의 방문 후에 우리는 공원 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원폭조선인피해자추모비를 방문하였습니다. 1979년 8월 9일 나가사키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회에서 만든 이 추모비는 공원 내에서도 후미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표 하나 없이 찾아간 이곳에 설치된 안내판도 많이 닳아 있고 글씨들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에 따라 약 만 명의 조선인이 폭사하였고 2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피폭한 것을 추모하며, “우리들 이름 없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간의 돈을 모아 이곳 나가사키에서 비참한 생애를 보낸 1만여명의 조선 사람을 위하여 이 추모비를 건설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두 상반된 모습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자세에 대하여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역사를 공부하고 마주했을 때에는 인류의 근현대사가 마냥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과거에 쏘인 매듭이 현재를 움아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성세대가 이 매듭을 푸는 것은 기피하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원폭의 피해 국가이지만, 제국주의의 가해 국가로 기억되고 있는 일본에 이중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와 침략 경험이 있던 피해 국가들은 일본에 대해 다른 기억을 안고 역사를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 야스쿠니 신사가 대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이 부재한 채, 그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적 팽창을 할 수 있었다는 일본의 어조는 피해 국가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에 큰 장애물입니다. 원폭자료관에서도 제국주의 가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피폭국가라는 이유로 피해 경험에 집중하고 있는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 하영선 선생님과 함께 원폭조선인희생자추모비에 방문하여 추모하는 모습

피폭을 당했다는 이유로 조선에 대해 36 년간의 식민 지배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성적인 인간 사회에 살고 있고, 그 시발점이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이를 한 국가 차원, 혹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피해 국가입장에서는 피해에 비해 성찰이 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폭 투하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대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통주의, 수정주의, 그리고 제 3 의 시각 모두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특히 조선인 추모비에 방문하면서 원폭투하의 역사라는 무대에서 한국이 구성하는 내레이션을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자 존 다우어(John Dower)가 일본 피폭 역사를 서루하며 “일본이 느꼈을 감정을 ‘안으로부터’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1945 년 광복 당시의 조선인의 눈을 빌려 원폭 투하를 바라보며 또 새로운 역사의 내레이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원폭 투하로 인해 일본은 패망하였기 때문에 해방의 원폭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역사를 해석한 경우가 대다수로, 해방을 선물 받은 셈이지만, 그 원폭으로 직접적으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조선인들이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과 이후 역사에서 냉전의 비극을 직접적으로 겪었다는 점에서 인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을

해방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반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언제나 피해자 중심에서 국제정치를 생각해온 경향이 많았던 한국도 피해와 가해 경험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에 대해 저지른 범죄가 대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행위자는 언제나 선(善)의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행위자는 선 일수도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의, 수정주의 등의 하나의 관점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늘 가해와 피해 경험의 시각을 함께 들여다보며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행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사키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나종남, 박일송. 2007. “트루먼 행정부의 태평양 전쟁 종전방안 논의 : 원자폭탄 사용 결정 1945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양사연구> 36호, 85-123.

이완범. 2005. “트루먼과 동북아 냉전”. <미국사연구> 21호. 69-103.

Gar Alperovitz. 1966.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 the use of the atomic bomb and the American confrontation with Soviet Power*. London : Secker & Warburg.

J. Samuel Walker. 2005. *Recent Literature on Truman's Atomic Bomb Decision: A Search for Middle Ground*. Diplomatic History, Volume 29, Issue 2. 311 - 334.

Ronald Takaki. 1995. *Hiroshima : why America dropped the atomic bomb*. Boston : Little, Brown, and Co.

Tsuyoshi Hasegawa. 2005. *Racing the enemy :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 Cambridge, MA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Atomic Archive. Accessed December, 12, 2018. <http://www.atomicarchive.com/History/mp/p5s1.shtml>

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Accessed December, 11, 2018. [https://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y\\_collections/bomb/large/index.php](https://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y_collections/bomb/large/index.php)

# 토마스 글로버와 나가사키 젊은 그들, 조슈 5인 \_나가사키 구라바엔

이송은

연세대학교

## 구라바엔, 일본 근대화의 시발

해질 무렵 도착한 구라바엔(グラバー園, Glover park)의 정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구라바엔은 16세기 후반 대서양의 파도를 넘어 꿈을 안고 나가사키에 온 외국 상인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곳입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래한 이곳은 19세기 일본의 개항과 더불어 일본의 최대 무역항으로 발전하는 기점이 된 곳입니다. 나가사키(長崎)는 요코하마(横浜)와 하코다테(函館)와 함께 일본의 최대 개항지로서 일본의 화려하지만 이색적인 곳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가사키 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일본식 기와에 덮인 서양식 건물과 나란히 나가사키 외국인 거류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새긴 구라바엔은 스코틀랜드의 무역 상인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Thomas

Blake Glover, 1838-1911) 저택을 비롯해 3 개의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주택과 나가사키 시내의 귀중한 서양식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3 개의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인 글로버 저택과 오르토 저택, 링거 저택은 150 년 이상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 세 곳 모두 국가 지정 주요 문화재로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의 구성 자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구라바엔 홈페이지 2018 년 12 월 25 일).



▲ 구라바엔 입구

구라바엔은 일본의 아름답고 경치 좋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서양 상인들의 대(大)저택이지만 그 역사와 숨은 이야기들을 알고 바라보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는 방대(龐大)한 저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인 구라바엔에서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옮기면서 방대(龐大)한 저택 속에 숨겨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볼까요? 그 기점에서 한국의 젊은 친구들인 사랑방 12 기와 일본의 젊은 청년들인 조슈 5(長州五傑) 와의 조우를 통해 일본의 근대화와 그 기로에 선 청년들의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 무사의 나라에서 산업 국가로, 메이지유신

2018 년으로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15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사랑방 12 기가 도착해 보았던 나가사키 곳곳에서 일본의 메이지유신 150 주년 행사가 곳곳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메이지유신은 일본의 사회, 정치,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일본의 개혁이자, 정치적 근간으로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심축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메이지유신이란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던 무가정권 에도 막부(1603~1867)를 무너뜨리고 근대국가를 수립한 일본에서 일어난 정치·사회적 대변혁 과정으로서, 당시 조선의 갑신정변, 베트남의 동유(東留) 운동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려 노력할 정도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 '나가사키 막말 유신제'

그렇다면 메이지유신이 일본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이지유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7세기 초부터 백여 년 넘게 쇄국 정책을 유지해온 에도 막부가 1853년 미국 동인도함대의 페리 제독이 무력시위로 개국을 요구하자 막부의 정책은 흔들리기 시작한 데서 출발합니다.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 믿었던 막부 정권의 흔들림이 곧 일본 사회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부는 이 상황에 독단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조정과 각 지방의 영주인 다이묘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조정과 대부분의 다이묘들은 개국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막부 최고 실권자 이이 나ოს케(井伊直弼)는 1858년 개국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고메이(孝明)

천황의 칙허 없이 서구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기에 강압적으로 정책을 타진하던 정부에게는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이러한 막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천황을 높이고 외세를 배격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이 조슈 번 (번: 에도 시대에 통상적으로 쓰인 행정단위)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막부는

이에 존왕양이파를 탄압하기 위해 사형, 유배 등과 같은 처벌을 강행하지만 막부 정부에 대한 적개심만 높아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이 나오스케가 존왕양이파에게 암살당하자 정국은 혼란에 빠졌고, 조정과 뜻을 같이한 존왕양이파와 막부 사이의 의견 대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막부는 조정과 막부로 이원화된 정치구조를 하나로 합치는 ‘공무합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메이 천황은 “막부가 양이책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천황 자신이 양이를 위한 친정을 행하겠다”고 표명하며 막부의 양이시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막부는 1863년 5월 10일 이미 통상조약을 맺은 서양 각국까지도 배척하는 양이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대학신문 2018년 4월 8일자).

사실 막부는 실제로 양이를 시행할 계획이 없었고, 조슈 번은 단독적으로 개항에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쓰에이(薩英) 전쟁, 시모노세키(下関) 전쟁과 같은 일본의 굵직굵직한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다 패배하였다.

이러한 기점에서 일본은 왜 근대화가 필요했을까요? 반세기 만에 국가를 변혁시켜 산업국가로의 기초를 쌓은 것은 세계역사상 지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무사의 나라에서 산업 국가로 나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됨으로써 빠른 속도로 근대화가 가속화되었고, 메이지유신이 시행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전한 소식은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므로 이 일을 계기로

‘바다를 자유롭게 달리는 증기선과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는 대표를 가졌으며, 대국인 청나라도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일본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나가사키 관광추진과 2018, 2)

이라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편 전쟁 이후에 쓰인 청나라 학자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 중국과 서양의 지도, 역사, 서양의 기술 등을 해설한 책)’가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의 각 번에도 강한 위기감과 개혁의 움직임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에도 시대 말기에 활약한 요시다 쇼인 (吉田松陰),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 가쓰 가이슈(勝海舟),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와 같은 지사(志士)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시대를 기점으로 일본의 근대화가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영국의 기술을 일본에 도입한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가 있습니다. 난학서(蘭學書) 등 책에 힘을 빌려 산업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던 무사들에게 강력한 지원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글로버는 21 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타고난 상인으로서의 재능 덕분에 23 세의 나이에 글로버상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선박의 왕래와 바로 앞에 건설된 나가사키 제철소를 볼 수 있는 이곳에는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였고, 산업화를 지향하는 무사들에게도 최신기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 글로버 저택에서 바라본 나가사키 항

## 혼란기의 일본 속에서 글로버의 깨달음: “견문각지(見聞覺知)”의 중요성

1859년, 일본은 카나가와(神奈川), 나가사키(長崎), 하코다테(箱館) 3항을 개항하였습니다. 1858년 영일수호통상조약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영일수호통상조약은 영국과 에도 막부 사이에 체결된 영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통상에 대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맺었던 불평등 조약 중 하나로서, 이를 계기로 이 해 9 월 글로버는 매킨지의 부하 상인으로서 나가사키에 도착합니다.



▲ 구라바엔에 전시되어 있던 만화  
“1859년의 글로버”

영국 청년 글로버가 도착한 일본은 어땠을까요? 이미 개항 시기의 나가사키는 거대한 무역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었고, 이 시기 약 150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중 대부분은 영국인들이었고, 글로버는 이 당시 무역상으로서 경험을 쌓아 갔습니다. 글로버는 일본 방문 2년 뒤, 자딘·마세손 상회의 나가사키 대리점으로서

토머스·글로버 상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어 텐트상회, 새슨상회 등 대형상회와도 에이전트 계약을 했고, 1862년에는 아널드상회, 브레인테이트상회와도 파트너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글로버 상회와 명칭을 바꾸고 차의 재생공장을 운영해 차 수출을 주요 업무로 했습니다. 1863년부터 1865년경, 글로버 상회는 나가사키로부터의 차 수출량의 20~30%를 차지하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버가 일본에 왔을 때에는, 이미 몇 개의 메이슨계 상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막부와 밀접한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버

상회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민간 사업으로서 차의 수출부터 장사에 착하였습니다. 이 당시 글로버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여러 걸림돌이 있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이러한 글로버의 정치적 결탁이 추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윽고 에도막부 말기 시사와 관련해 반막부적인 다른 번과의 무기 탄약, 함선의 판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무기 상인으로 활약하게 된 글로버는 적극적인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 프리메슨의 사상인 자유, 평등, 박애를 근왕의 지사들에게 배양해 나갑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장 깊이 결합하는 것이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구라바엔에 전시되어 있던 만화 글로버 상회와 글로버저택의 설립



▲구라바엔에 전시되어 있던 만화 글로버의 인물관계도

또한, 글로버는 1866, 일본인 아내 츠루와 결혼하였습니다. 츠루는 오페라 나비부인의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모노 차림으로 일본 여성의 아내로서 남편 글로버를 위해 한평생을 받쳤다고 합니다. 이 좋은 아내가 있었기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글로버는 일본의 근대화에 놀랄 만큼 다양한 공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글로버는 일기를 통해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Glover believed in the importance of getting the brightest young Japanese to the West to see for themselves the technical and other advances; it is clear that he felt this the best way forward, that on their return the rebels would be the best advocates of change and be listened to more than any foreigner(Alexander Mckay 2014, 48)

이러한 믿음 아래, 글로버는 후대 널리 알려진 일본의 젊은 청년 ‘조슈 5’를 영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글로버의 계약: 복잡한 현실 속 청년들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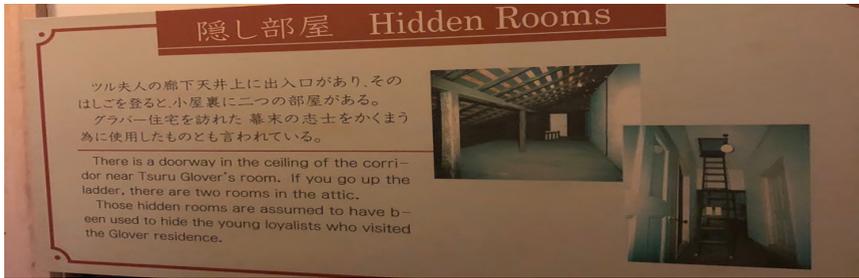
그렇다면 글로버는 어떻게 일본의 젊은 청년들인 조슈 5 인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요? 또한 이 5 인들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조슈5인. 상단좌측부터 엔도 긴스케, 이노우에 마사루, 이토히로부미. 앞줄 왼쪽부터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오 요조 (출처: 위키백과)

먼저 조슈 5인(長州五傑)은 조슈 번에서 1863년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유학을 떠난 엔도 긴스케(遠藤謹助),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야마오 요조(山尾庸三) 다섯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쇠국령으로 인하여 일본을 떠나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지도로 공부하였고, 이들 중 두 명은 일본의 유력한 정치가가 되었는데,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쇠국령으로 인하여 일본을 떠나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지도로 공부하였고, 이들 중 두 명은 일본의 유력한 정치가가 되었는데,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나가사키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글로버의 저택은 근왕 시사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버는 이와 같은 조슈 5인 시사와 이후의 기업가를 지원하고, 그들은 그 후의 일본을 움직인 중요한 인물이 되어 메이지정부 실현의 음지에서 공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글로버 저택 깊숙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글로버 저택 안 숨은 방

사료에 따르면, 1863년 9월, 생보리 사건의 보복으로, 영국 함대가 카고시마만에 침입해, 사쓰에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글로버 저택에서 조슈 5인은 숨어 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조슈 5인은 마쓰기 흥암(테라시마 종작)과 함께 지휘하던 증기선 3척을 나포해 배를 소각당하고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분노한 동변사의

목숨을 노리면서 조슈 5인은 당분간 신축하자던 그라바 저택의 지붕 뒤쪽에 숨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버는 에도막부 말기 회천 운동을 추진하는 지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해, 내일의 일본을 담당하는 뛰어난 인재(明日の日本を日本を担う逸材)와 교류를 시작합니다. 글로버는, 나가슈번의 젊은 엘리트였던 이토 히로부미(당시 23세), 이노우에 카오루(29세) 다테 5명을 영국 유학을 알선하였습니다. 무쓰 무네미츠, 쿠로다 키요타카 등과도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조슈 5인을 중심으로 한 사쓰마번의 19명의 시찰단을 밀항시켜, 그 자금 원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맥케이(Alexander McKay)에 따르면, 어린 사쓰마인들을 몰래 출국시키는 단서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이로 떠났고, 고요는 사쓰마번 이에노 오마츠 대도를 이어서 번에게 상신서를 제출합니다. 고마쓰는 그래버와 친한 사이이고 번은 해외 유학생 파견을 즉각 결정하였습니다.

## 1863년, “내일의 일본을 위해”떠나는 젊은 청년들

이렇게 유학을 결정한 일본 청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조슈 5중에서도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는 본인의 일기에서 영국 유학 당시의 경험과 과정을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노우에 마사루는 1843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노무라(野村)가의 양자가 되어 노무라

야요기치라고 자신을 칭하였습니다. 그는 16 세 때, 번의 명으로 나가사키에 가서 네덜란드인으로부터 양학을 배우기 시작해, 이듬해에는 에도성으로 나가 포술과 서양학을 배웠습니다. 1 년 반 정도가 흐른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에도에서의 면학을 희망하면서 다시 에도로 갑니다. 또한 요코하마의 외국인 거주지에서 영어를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대한 관심은 다른 선사(藩士: 제후에 속하는 무사) 이상으로 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의 꿈

추후 일본의 철도의 아버지가 되는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는 조슈 5 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중진으로서 오로지 정치계에 발을 담갔던 이노우에 마사루는 청년 시절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1863 년 3 월, 조슈번이 요코하마의 마세손 상회에서 구입한 범선 등이 효고에 입항하였습니다. 이 당시, 번으로부터 선장을 명령 받았던 것은 마사루는 측량법을 맡은 야마오 요우조(山尾庸三)였다. 두 사람은 서양학자 다케다 아야사부로(武田斐三郎)의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양의 학문,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게 되었고, 우연히 케이코고로(桂小五郎)와 이노우에 후미타(井上聞多)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국금을 범하며 영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유 허가를 번에 신청하면서 개혁파의 상사인 스후 마사노스케( 周 布 政 之 助 )에게 실현을 향한 진력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의 요직에 있던 카츠라만은 중요한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수 없어, 그 대신 이토 슌스케와 엔도 킨스케가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1863년 5월 12일 그들의 유학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조슈 5인 노무라, 야마오, 이토, 이노우에, 엔도의 5명을 태운 마세손 상회의 증기선인 첼스워호는 요코하마에서 상하이로 향해서 출항하였습니다. 그때 마사루는 5명 중 최연소인 20세였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는 배 2척에 나눠 타고 영국으로 향하였습니다. 마사루, 야마오, 엔도 등 세 사람을 태운 '화이트 어더(ホワイトアッダ)' 호가 도버 해협에 들어서자 마침내 런던 남부로 펼쳐지는 백악질 절벽이 하얗게 빛나는 웅대한 경치가 보였다고 마사루는 추후 회고합니다. 이국의 풍경, 사람들의 모습, 생활이나 습관도 포함해 첫 해외 유학은 분명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그는 후술하였습니다.

일본을 출발하고 나서 약 4개월 후, 화이트 어더 호는 런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 3명은 윌리엄슨 박사(화학 교수)의 집에 하숙해, UCL 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사루는 그곳에서 분석 화학, 나중에는 지질 광물학과 더 나아가 수리물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마사루는 영국 유학 당시 일본 철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런던의 교통수단 발달에 대해 감탄했고, 일본에도 철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후술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철도나 광산의 현장을 둘러보았고, 실제로 기관사를 배우면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1864년 4월, 조슈 번이 외국선을 포격 해 보복 당할 것 같은 것 같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알게 된 이토와 이노우에가 번을 구하려고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해에는 엔도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윽고 야마오도 조선기술을 배우기 위해 글래스고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런던에 남겨졌던 마사루는 3년이 지나고, 유학 자금은 바닥이 났지만. 그는 윌리엄슨 교수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노우에는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에 대한 걱정은 국내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해외에 있을 때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예를 들어 영주는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동지 번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들이 양이에게 전사한 것이 아닐까 또는 패전의 결과 토지를 할양하는 궁지에 빠진 것이 아닌가?” (Sidney DeVere Brown, 1994)

## 나라의 존폐는 청년의 가슴에서,

글로버가 일본의 젊은 청년들인 조슈 5인을 영국으로 밀항까지 시킨 이유는 글로버가 무역 상인으로서 영국 외교정책의 실현을 활성화하게

하려는 그의 경제적 이점 등이 일차적인 목표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 owing to the political troubles Trade is almost completely stopped...” (Alexander McKay 2014, 46)

실제로 그는, 본인의 서신을 통해 일본 국내 생보리 사건을 시작해 사쓰에이 전쟁까지 일본 내 막부와 반 막부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영국 공사 파크와 함께 프랑스를 물리치고 일본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버의 개인적인 희망에 대한 실현도 있었지만, 그는 젊은 청년들의 꿈을 그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때 영국을 다녀온 일본의 젊은 청년들은 일본 최고 개혁인 메이지유신의 중추적인 인물들로 급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초대 외무장관, 농민아 교육의 아버지, 초대 내각 총리대신 그리고 일본 철도의 아버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 사회를 좌지우지 했던 인물들은 모두 20 대 청년입니다. 우리 사랑방 기수들 또한 미래를 꿈꾸는 20 대 청년들입니다. 그 기점에서, 나가사키에 있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가슴에 담고 찬란한 미래를 꿈꿔볼 수 있었습니다.

## 참고문헌

나가사키 관광추진과. 2018. “메이지 시대(1868년~1912년) 일본의 산업혁명과 나가사키의 근대화 유산.” <https://travel.at-nagasaki.jp/resources/ko/main/industrial.pdf> (검색일: 2018. 12. 22.)

대학신문. 2018. “150년 전의 명치(明治), 현대 일본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91> (검색일: 2018.12.22.)

McKay, Alexander. 1993. *Scottish Samurai: Thomas Blake Glover 1838-1911*, Edinburgh: Canongate.

Sidney Devere Brown. 1993. “Nagasaki in the Meiji Restoration: Choshu Loyalists and British Arms Merchants,” Accessed December 22, 2018. [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_staff/earns/meiji.html](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_staff/earns/meiji.html).

杉山 伸也 . 1993. 『明治維新とイギリス商人：トマス・グラバーの生涯』 (岩波書店)

# 준비된 이가 기회를 잡는 법! 일본 도자기를 통해 본 17-18 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 \_규슈 도자기박물관

김도현

연세대학교

## 들어가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첫째 날과 달리 도잔신사로 향하는 둘째 날 아침은 햇살이 유난히 포근했습니다. 도자기와 신사, 도자기와 국제정치, 이들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연관성을 한걸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향한 도잔신사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이주되었던 수많은 도공들 중 한 분인 이삼평이란 도공을 모신 신사입니다. 여기서 (강제)이주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 학자들 간에 당시 도공들의 이동이 강제성을 띠었는가에, 아니면 자발적인 이주였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명백한 강제 이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옛 히젠국의 번조였던 나베시마 나오시게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수많은 조선의 도공들이 유입되고 1616년 조선 도공 이삼평이 이즈미야마에서 자기 생산의 중요한 원료인 백자토를 발견하고 고급 도자 기술을 요하는 백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1,300℃ 이상의 고온에서 자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었고, 지금의 반도체처럼 도자기 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자 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삼평이라는 인물 덕분에 17-18세기 유럽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이윤을 남기는 도자기 생산 기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방문한 도잔신사는 바로 도자기의 조상인 이삼평을 모시는 신사였고, 신사에서



▲ 하영선 선생님과 사랑방 11기, 도잔신사 앞에서

10 여분 걸어 올라가면 그를 모시는 도조이삼평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삼평의 위상이 '도자기의 신'으로 불릴 만큼 높은 것입니다.



▲ 하영선 선생님과 도조신사에서

하지만 기술력만 갖췄다고 해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흥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시 고급 도자기 생산 기술을 가진 중국, 조선, 일본 이 세 동아시아 국가들 중 17-18 세기 일본의 도자기가 유독 유럽 국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두 세기 동안 역동적으로 흥하고 쇠했던 일본 도자기 무역의 양상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는

1602년 설립되고 1799년 해산되기까지 17-18세기 세계 최대의 무역회사로 활약했습니다.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도 동인도회사를 설치하여 대아시아 무역을 시도하지만, 적어도 17세기와 18세기 초반까지는 VOC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VOC 도자기 무역 양상 중에서 특이한 지점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수출하던 도자기 무역의 상당 부분이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일본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약적으로 상승하던 VOC와의 무역량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특이점을 관찰하며 저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번 답사를 통해서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VOC는 왜 하필 조선이 아닌 일본의 도자기와 사랑에 빠진 것일까요? 그리고 50년간 이어진 VOC의 일본 도자기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이유로 점차 사그라진 것일까요?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그 둘은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 중국 도자기와의 이별, VOC를 눈 돌리게 하다

VOC가 일본의 도자기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의 정치적 배경 때문입니다. 사실 VOC는 일본과 도자기 교역을 하기 전 이미 중국의 도자기와 사랑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말부터

이어진 교역은 명-청 교체기의 혼란으로 인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7세기 명-청 교체기로 상징되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변환으로 인해 주요 도자기 생산기지였던 경덕진이 파괴되고 여러 관요가 폐쇄됨에 따라 중국의 고급 도자기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독점적인 도자기 산업구조가 일시적으로 균열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당시 VOC는 유럽에서 증대된 고급 도자기의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대체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VOC는 중국의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의 도자기를 중국 도자기의 대체품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산 청화백자가 유럽시장에 대량으로 처음 수입된 것은 1602년으로 VOC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시장에 발을 디디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1636년 청이 건국되고, 1644년 명이 완전히 멸망하는 과정에서 1654년까지 경덕진요를 포함한 중국의 관요는 모두 폐쇄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1673년 오삼계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경덕진요 대부분이 파괴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1683년 청나라가 중국 국내 통일을 달성하면서 1668년 해금정책을 풀고 경덕진의 자기 생산이 재개된 1684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 40여년 정도의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 자기 생산의 불안정성은 네덜란드와 같은 수입국들이 새로운 대체품을 찾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T.Volker(1971)에 따르면 “VOC 가 명나라에 접근했을 때, 이미 청나라에 의해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1644 년 만주족이 명나라를 대체하면서 베이징을 수도로 하는 청나라를 건국한다. 만주족은 네덜란드와 수 차례 무역과 포모사에 관한 이해를 도출하고자 한다. 만주족 정부는 심지어 정성공을 포모사와 남중국해로부터 쫓아내는 조건으로 VOC 에게 포모사를 복구해주기로 약속한다.” 명-청 교체기라는 혼란기에 VOC 는 명나라를 계승한 정성공과 청나라 간의 대립된 관계를 풀어나가며 무역을 성공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VOC 에게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는 VOC 에게 정성공이 차지한 타이완 섬을 차지한다면 이후 경덕진이 복구된 뒤에 청과의 무역에 대한 이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과 같은 경제적 관계보다도 정치적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도자기 수출 공백기를 틈타 동아시아 도자산업에서 후발주자였던 일본은 VOC 의 중개 무역을 통해 새로운 고급 도자 공급자로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중국의 공백기는 일본의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의 대체품으로서 세계 무역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 아리타와 이마리에서 꽃 피운 일본의 도자기

중국의 구조적 공백을 틈타 성장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도자기와는 다른 기술적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유럽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T. Volker (1971) 에 따르면 VOC는 일본에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주문함으로써 유럽시장에서 원하는 도자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도자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였던 청화백자뿐만 아니라 채색자기까지 다양한 용도와 기형의 도자들이 상당수 수출되었습니다. 유럽인의 수요에 맞춘 일본 상품들의 차별성은 19세기 유럽 내 '자포니즘'이라는 일본풍의 유행을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이 VOC의 요청에 부합하는 청화백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된 데는 일본으로 (강제)이주한 조선 도공들의 역할이



▲ 규슈 도자기문화관에 전시된 화려한 도자기 그릇

했습니다. 조선으로부터의 도자기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의 도자기 무역의 기초 토양이 된 것입니다.

김유정(2017)의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도자가 조선 도공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16년 조선 도공 이삼평이 이즈미야마에서 백자토를 발견하고 고급 도자 기술을 요하는 백자를 생산을 시작한 이후 일본 수출 도자는 청화백자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붉은색의 가키에몬 또는 고이마리 양식의 채색 자기로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18 세기에 일본 아리타.이마리도자 양식을 모방한 차이니즈 이마리라고 불리는 도자가 유럽시장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도자 기술은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리타와 이마리는 일본 내에서 도공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정착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리타와 이마리는 17 세기 일본 수출 도자를 가장 많이 생산한 대표적인 요업지로 자리합니다. 수많은 조선 도공들의 기술 전파를 통해 일본은 도자 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 나가사키 개항을 통한 외국과의 교역 확대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정치적, 기술적 배경은 당시 조선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명-청 교체기는 조선과 일본 모두에게 기회였고 기술력 또한 조선이 일본에 결코 뒤쳐진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조선의 도자기 산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 햇살이 부서져 내리던 도조이삼평비 앞에서

그 차이점은 일본의 경제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도자기의 수출항 역할을 담당한 나가사키 데지마는 네덜란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데지마는 나가사키 지역의 유력한 25 명의 상인들이 출자하여 1634 년부터 2 년 간 건설하여 만들어진 인공섬입니다. 일본은 데지마라는 독특한 창구를 통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쇄국 기조 하에서도 네덜란드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류큐와는 예전과 동일한 무역관계를 유지한 반면, 외국선은 중국과 네덜란드만 받아들일도록 정했습니다. 1616 년에 유럽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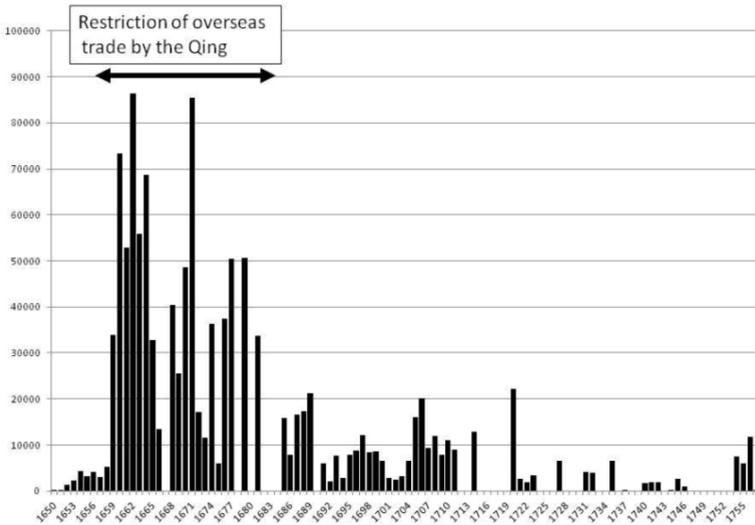
기항지가 히라도와 나가사키로 한정되었고, 1635년부터는 나가사키에만 기항할 수 있었으며, 그 역시도 나가사키 전역이 아니라 '데지마'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한정시켰던 것입니다. 조선의 경우는 일본과 사정이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1648년 네덜란드 스페르베르(Sperwer)호가 좌초되는 과정에서 조선으로 오게 된 하멜의 이야기가 실록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조선은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교류의 여부가 17-18 세기의 국제정치적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조선과 일본에게 큰 차이를 가져다 준 셈입니다.

T. Volker (1971)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처음 도착한 17 세기의 일본은 도쿠가와 쇼군 정부가 1603년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VOC 는 1609년부터 1641년까지 히라도와 1641년부터 1862년까지 데지마라는 나가사키 항구에 위치한 인공 섬에 첫 공장을 갖게 되었고, 1641년 이후 네덜란드는 일본에서 교역하도록 허가 받은 유일한 유럽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기 생산과 무역의 특별한 결과에 있어서 이러한 네덜란드의 조건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 VOC 의 쇠퇴를 가져온 1~4 차 영국-네덜란드 전쟁

그렇다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던 VOC 와 일본의 도자기 무역은 돌연 어떠한 이유로 쇠퇴하게 된 것일까요? 일본 도자기 무역이 감소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1~4 차 영국-네덜란드 전쟁을 거치며 영국과의 해상패권경쟁에서 밀린 VOC 의 침체 때문입니다. C.J.A. Jörg(1984)에 따르면 “17 세기 유럽에서 중국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유일한 경쟁자는 영국 런던 회사였습니다. 마카오와 마닐라에서 네덜란드인의 유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은 여전히 중국 자기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그들의 영토 내에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인과 덴마크인들은 간헐적인 운반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처럼 영국인들도 중국과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교류를 시도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통킹, 반탐, 포모사 그리고 말레이 군도와 인도 해안의 다른 항구들을 활용하여 공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샤만과의 교역에는 성공했지만 수준 낮은 질의 비단과 수요가 있는 상품들, 그리고 교역 제한들이 1689 년 그들이 무역을 포기하게끔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영국은 지속적으로 네덜란드의 해상권을 눈독들일 수 밖에 없었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중국과의 교역을 사이에 두고 패권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의한 히젠 도자기의 공식 수출액(1650-1757)  
 (아리타초 역사 편찬위원회, 1988: 와타나베 요시로, 2013에서 재인용)

1652 년 영국이 네덜란드 중개 무역상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항해조례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제 1 차 영국-네덜란드 전쟁, 영국 왕정복고 정부에 의한 1660 년의 항해조례 경신과 신대륙의 네덜란드 식민지 점령 등으로 일어난 2 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665 년-1667 년), 프랑스와 도버밀약을 맺은 영국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간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발발한 3 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672 년-1674 년)까지 두 나라는 해상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3 차 전쟁을 계기로 하여 네덜란드의 해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동방무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 의 그래프에서도

보여주듯이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는 일본의 도자기 무역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상권을 둘러싼 영국과 네덜란드의 국제정치적 관계는 일본과의 도자기 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T.Volker(1971)에 따르면 4 차 영국-네덜란드 전쟁 종전 이후 네덜란드는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하게 물가가 하락했고 이러한 손실이 지속되었습니다. 1789 년 감소한 대 중국 무역을 통해 다시 물가와 이윤이 증가시킬 것으로 보였으나, 1792 년 홍콩을 떠난 배들이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로 인해 네덜란드에 도착하는 데 실패하면서 네덜란드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4 차 전쟁에서 네덜란드의 패배는 1799 년 VOC 가 해체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네덜란드 중개무역의 최대 수혜자였던 일본 역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경덕진의 재부흥으로 인한 일본 도자기 대체

18 세기 들어와서 VOC 가 일본을 포기한 데 또 다른 배경은 바로 경덕진의 재부흥입니다. 1683 년 청나라가 중국 국내 통일을 달성하면서 경덕진의 자기 생산이 재개된 1684 년 이후 기존 유럽시장에 도자기 수출을 담당하던 중국의 물량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지로도(2016)에 따르면, 17-18 세기경

경덕진에는 수천 개의 가마가 위치하여 도공만 5 만 내지 6 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중국의 생산 공백기에 일본의 생산량이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충분한 생산기지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중국의 재부상은 일본의 도자기 무역을 위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VOC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된 일본 도자기

C.J.A. Jörg(1984)에 따르면 “1683년 만주족 정권의 안정과 중국 제국의 포모사 합병 이후, 말라카와 마닐라, 일본 그리고 말레이 군도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비록 허가제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외국인에 의한 중국과의 교역이 그 때 허가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운항에서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네덜란드 자국의 배를 구할 필요 없이 중국 상품을 중국 국내 가격보다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바타비아와의 교역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중국 상인들을 독려했고 물자의 흐름이 중국 상품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맞추는 만큼 충분할 때 교역을 멈출 수 있었다.” 이처럼 VOC 의 교역은 청나라의 통일 이후 네덜란드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펼쳐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VOC 가 일본 상인들에 한해서 교역을 맺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무역에 있어서 VOC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유럽으로의 도자 기술 전파로 인해 감소된 도자기 수요

세 번째 배경은 유럽으로의 도자 기술 전파입니다.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1640 년대부터 1740 년대까지 중국의 청화백자를 모방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면, 1709 년 독일 마이센에서 비로소 중국 자기 제조의 비밀이 밝혀지고 유럽 최초의 백자가 만들어집니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 세의 노력으로 인해 마침내 확보하게 된 유럽의 도자 기술은 더 이상 도자기의 생산을 중국과 일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유럽의 도자기는 프랑스 세브르, 영국 제스퍼웨어 등을 거쳐 유럽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의 도자기를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고, 특히나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도자기의 대량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럽으로의 기술 전파는 VOC 의 일본 도자기 수입이 감소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Robert Finlay(2010)에 따르면 “유럽의 폭발적인 백자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 지게 되고 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여러 왕을 비롯한 지역의 권력자들은 앞 다투어 백색 자기를 스스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순도가 높은 백자기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던 가운데 1710 년 독일 작센주(Sachsen)의 마이센(Meissen)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국 명나라에서 수입되던 것과 같은 품질의 백색 자기를 만들게 되었으며 엘베강(Elbe) 연안 마이센(Meissen)의 북서쪽의 젤리츠(Selitz), 캄리츠(Kemmlitz) 등에서 연이어 양질의 카올린 광산이 발견되면서 마이센(Meissen)의 백자기 생산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마이센(Meissen)이 유럽 최초로 백자 생산을 하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생산 기설을 확장하였으며 1740 년 프랑스의 세브르(Sevres)를 시작으로 덴마크의 로열코펜하겐(Royal Copenhagen, 1727) 등으로 백자 생산 기술이 전파되어 나갔다.” 마이센에서 시작한 도자 기술 혁명은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문화 양식에 부합하는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일본의 도자기에 대한 수요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 과 비교해보아도 유럽의 도자기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1720 년대를 기점으로 일본의 도자기 수출은 급감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의 자기 기술이 유럽에

전파되어 또 다른 문화 양식을 만들게 되고, 이는 VOC 가 중개 무역으로 수출하던 도자기가 유럽 내의 시장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나오며: 복합적 외교전략의 필요성**

17-18 세기 VOC 의 일본 도자기 무역은 당시 최고급 문화 기술로 인식되던 자기 기술의 전파와 국제정치의 구조가 네덜란드와 일본의 도자기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17세기 초반 명-청 교체기의 혼란 이후 1683년 청이 중국 국내를 통일하고, 1684년 경덕진에서 자기 생산을 재개하기까지의 구조적 공백은 일본이 자기 기술의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VOC 를 통해 유럽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은 자기 기술의 정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정치의 구조를 일본이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도공의 (강제)이주로 인해 일본에의 조선 자기 기술이 이미 전파되었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데지마라는 특수한 경제 교역지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개항에 지체하지 않았던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기술적 요인은 국제 질서의 혼란기에서도 한 국가가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후발주자라는 불리한

위치에서도 충분히 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VOC 와 일본 도자기 교역이 17 세기 중반에 간헐적으로 중단되다가 17 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축소되었던 이유 역시 정치, 경제, 기술적 요인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1652 년 처음 발발한 영국-네덜란드 전쟁은 1780~1784 년의 4 차 전쟁을 정점으로 1799 년 VOC 가 해체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벌였던 패권 경쟁은 당시 VOC 라는 교두보를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했던 일본의 자기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1683 년 청나라의 중국 통일 이후 1684 년, 경덕진의 자기 생산이 재개된 것은 기존 자기 시장의 패권을 가진 청나라라는 강자가 복귀함에 따라 일본 자기의 위치가 비교적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자기 기술이 일본에 전파됨에 따라 급성장한 일본의 자기 기술이 일본의 부흥을 일궈내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1709 년 마이센에서 시작된 유럽의 자기 기술 역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를 거쳐 영국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새로운 문화권으로 전파됨에 따라 더욱 발전하고 대량생산을 통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7-18 세기 VOC 와 일본의 도자기 무역이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일본 도자기 산업의 확대와 축소 모두 동일한 정치, 경제, 기술적 요인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 교류가 단순히 한 산업의 기술력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작금의 국제정치적 환경, 국제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전파와 당대의 정치, 경제 환경이 미래의 국제정치 구조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21 세기의 복합적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청화백자를 넘어선 일본만의 도자기 양식을 창조하다

## 참고문헌

- 김유정. 2017. “17세기 일본 도자의 등장과 무역시장 변동의 동학 - 기술과 문화 전파의 국제정치경제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미스기 다카토시. 2001《동서도자교류사: 마이센으로 가는 길》, 김인규 역. 서울: 놀와.
- 알렉산드로 지로도. 2016. 《철이 금보다 비쌌을 때: 충격과 망각의 경제사 이야기》 송기형 역. 서울: 까치.
- 와타나베 요시로. 2013. “히젠(肥前) 도자기의 해외수출과 나가사키항” <로컬리티 인문학> vol. 10, 241-255.
- C.J.A. Jörg. 1982. *Porcelain and the Dutch China trade*. Dordrecht: Springer.
- Robert Finlay. 1998. “The Pilgrim Art: The Culture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9,141-187.
- T.Volker. 1954.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Leiden: E. J. Brill.

## 역관 김지남의 천하질서관 \_한일교류박물관

전재은

이화여자대학교

### 들어가며

사랑방 11 기의 규슈 답사 둘째 날 마지막 일정은 한일교류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이삼평 신사, 도자기 박물관과 사세보 해상자위대 자료관을 답사한 후 사랑방에서 ‘한일교류박물관’이라고 부르는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한일교류박물관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곳은 한일 교류와 관련하여 일본의 시각이 아닌 제 3자의 중립적인 시각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며,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전시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기대가 커졌습니다. 특히 원폭자료관이나 해상자위대 자료관에서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을 피해자로 서술하여 전시한 모습에 실망을 한 뒤라서 더욱 기대됐습니다.

한일교류박물관의 주요 업무는 나고야성 보존, 한일 교류사 전시 및 한일 교류사업 지원입니다. 이러한 한일 교류사업 지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통신사를 통해 문화, 의료, 기술 등을 교류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한일교류박물관에는 파랗고 높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저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한일교류박물관에 입장하기 전에 저희는 박물관 앞의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도도 떨어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느라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며 뻑뻑했던 규슈 일정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한일교류박물관 앞 카페에서 사랑방11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저희는 한일교류박물관을 향했습니다. 이전의 답사 보고서들과 블로그의 글들을 통해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드물며 아예 다른 방문객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봤던 저는 박물관을 나오는 일본인 가족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일간 감정이 악화된 현재, 한일교류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적었다면 매우 안타까웠을 텐데, 다행히도 박물관을 구경하고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어 웬지 뿌듯하고 기뻛습니다.

답사 이틀 동안 ‘시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던 저는 김지남의 시각과 천하질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술과 일본을 원폭의 피해자로만 표현한 것에서 누구의 시점에서 보는가에 같은 것도 너무나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Russo-Japanese War 혹은 Sino-Japanese War 이라고 배웠던 것들을 일본에서는 읽기도 불편한 Japanese-Russo War 이나 Japanese-Sino War 라고 지칭한 점에서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지남은 이러한 일본 중심의 서술이 아닌 천하질서관을 바탕으로 일본을 평가하였습니다.

## 김지남의 삶과 삶

1654 년에 태어난 김지남은 1672 년 18 세의 나이로 역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사역원에서 다양한 언어를 익히며 역관으로서의 업무를 익혔는데, 특히 한학 혹은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하였으며 당시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1682 년에 그는 통신사로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학 역관의 자격으로 합류하였지만, 이후 압물통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지남은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96 일간 보고 느낀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동사일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신이 나눈 대화, 관찰한 역참들, 일본의 풍경 및 시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중요한 사료로 남아있습니다.



▲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 사절단

같은 해, 김지남은 청나라에도 여행사로 방문하며 역관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김지남은 1712년에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지남은 뛰어난 언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백두산 정상을 지점으로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업적을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지남은 그의 역관 생활을 바탕으로 조선의 외교 및 통상을 정리한 외교서 《통문관지》를 편찬하게 됩니다. 조선의 지리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 일본과 여진과 접하거나 이웃해 있으며, “외교적 규례와 교섭 사례들을 후세에 남긴 문헌이 부족하고, 그나마 전란으로

말미암아 모두 인물되어, 전례를 고증할 적에 아무런 징험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한계를 인식하여 《통문관지》를 편찬하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통문관지 국역 홈페이지). 내용은 중국에 대한 사대 외교와 일본과 다른 이웃나라들에 대한 교린 외교를 체계적인 서술과 통상 및 외교 분쟁에 대한 기록을 통해 전례의 고증을 포함합니다. 《통문관지》는 당시의 사대교린의 외교를 반영하여 당시의 국제질서를 잘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김지남의 적극적인 역관 활동은 1714년,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 중 5명이 역과에 급제하여 역관 가문의 대를 잇게 되면서, 김지남은 조선의 대표적인 역관들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김지남의 저술 《통문관지》와 <동사일록>을 통해 각각 17-18세기 천하질서와 김지남의 이중적 일본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통문관지》와 17-18세기 천하질서

《통문관지》의 사대편과 교린편에는 17-18세기의 천하질서와 사대교린 예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천하질서 아래 조선과 일본의 지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지남의 시각으로 바라본 일본의 지위는 교린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사대편에서는 조선이 중국의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예이자 법으로 따라야 했었는데, 교린편에는 이와 다른 일본이 조선에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 특송사, 2 특송사, 3 특송사와 부특통사는 각각 해당 사선만을 다른 배를 대동하지 아니하였는데, 중간에 4 개 사선이 해마다 내조할 때에 부선, 수목선이라 일컫고 각각 2 척을 대동하고 왔으나, 우리 조정에서 규정된 선박 이외라고 하여 물리치고 접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왜인들이 많은 방면으로 간절히 애걸하면서 기꺼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래부에서 편의에 따라 그들을 대접하도록 허락하고, 금후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유시할 것을 계청하였다(통문관지 국역 홈페이지).

왜인들이 접대를 허락할 것을 간절히 애걸하여 동래부에서 대접을 하도록 허락 받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위계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힘을 바탕으로 위계구조를 따르도록 했다면, 일본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이 조선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용재총화에서 이르기를, “고려 말에 왜구가 많았으므로, 조선을 개국한 뒤에 바다 항구의 요해처에다 만호와 수군 처치사를 두었다. 이 때문에 왜인들의 변란이 조금 그쳤으나, 뒤에 또 문제를 일으키므로, 세종이 명하여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다. 비록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왜인들도 또한 우리 나라의 위력을 두려워하였다(통문관지 국역 홈페이지).”

나아가 국제질서 측면에서 일본을 동등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 교린(상)의 왜사의 숙배를 하는 법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력 기유년에 관백의 차왜 현소와 평경직이 와서 말하기를, “이미 서울에 입조할 수 없으니, 전패에 숙배하는 것으로 궐내에서 국왕이 인접하는 의식을 대체하기를 간청합니다.” 하였으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이것을 허락하고, 부산의 객사에서 행하도록 하였는데, 한결같이 궐내의 의식을 쓰게 하였다. 왜인들이 부산성 밖에 이르러 하마한 다음에, 걸어서 객사의 마당 가운데에 들어와서 땅에 자리를 잡고 행례하였는데, 수십년 이래 감히 이것을 어기지를 못하였다. 그런데 평의성과 평조흥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평경직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여, 이에 승정 정축년에 차왜 평성련을 보내 와서 말하기를, “조선의 통신사는 강호의 당상에서 행례를 하는데, 우리들은 마당에서 숙배하니, 피차에 공평한 도리가 전혀 아닙니다. 청컨대 청 위에서 행례를 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교지로

인하여 모두 그 숙박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왜사가 계책이 공하자, 이에 마당 가운데에서 판자를 깔고서 행례하기를 청하니, 우리 조정에서 이것을 허락하였다(통문관지 국역 홈페이지).

이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의 통신사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경도(교토)까지 행차를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조선은 명의 눈치를 보며 일본의 차왜가 상경하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부산에서 숙박하게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사신들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들이 존재했습니다.

무릇 일본에서 보내는 사선은 모두 대마도주의 문인을 받은 뒤에야 나올 것. 대마도주에게 전례에 의하여 도서를 만들어 주는데, 종이에다 견양을 찍은 다음에, 예조와 교서관에 갈무리할 것이며, 또 부산포에 두었다가 매양 왜인들이 서계를 가지고 올 적마다 이것으로 빙고해서 그 진위를 검증하여, 만약 격식에 어긋나거나 부험할 수 가 없으면, 배를 도로 일본에 돌려보낼 것(통문관지 국역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보내는 사선은 대마도에서 한 번 확인을 받고, 다시 부산포에서 확인을 받는 형식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특히 진위 확인을 하거나 격식에 어긋날 경우에는 배를 일본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거부권이 있는 조선의 우월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 동사일록과 이중적인 일본관

사대자소를 예로 받아들이며 천하질서 아래 한학 역관으로 지냈던 김지남이 본 일본은 어땠을까요? 김지남의 일본 방문기 <동사일록>을 통해 일본에 대한 김지남의 이중적인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 조선 통신사의 경로

우선, 김지남은 일본의 정치, 문화, 지적 수준을 저평가했습니다. 당시 소중화 의식이 팽배했던 조선은 자신들이 진정 정통 중화사상을 계승 받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을 낮추어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조선의 우수한 문화, 문물, 지식을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전수하기 위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낮추어 보는 시각이 김지남의 <동사일록>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일본인들이 조선 통신사로 온 자신과 다른 사신들에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왜인들 중에는 우리나라 서화를 구하는 자가 매우 많으나, 대마도 도주는 이를 일체 금하여 써 주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서화를 얻으려는 사람이 도주에게 청하면 도주가 상사에게 청해서 자기 생색을 내자는 까닭이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글이 저들에게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내 글을 간곡하게 구하기에 못쓰는 글씨지만 몇 장을 써주었더니, 마치 소중한 보배를 얻은 듯이 여러 번 고맙다고 하고 갔다. 가소로운 일이다. …… 방자 세 묶음과 모지 두어 장을 가지고 와서 글을 써 달라고 간청한다. 체면과 인정 때문에 줄필이나마 써 주었다. 단파와 그를 따라온 왜인들은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공경을 다해 예를 하고 갔다. 가소로운 일이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55-361).

이러한 서술을 통해 사신들에게 글을 청하는 왜인들에 대한 김지남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들의 글을 얻기 위해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과 얻었을 시에 소중히 하는 모습과 가소롭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일본을 낮추어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왜인들의 모습에 대해 “왜인들이 글씨를 보는 밝은 눈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표현하며 왜인들의 지적 혹은 문화적 수준에 대해 저평가하는 듯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김지남은 일본의 문화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도주와 세 중, 그리고 모든 웨인들이 쓴 관과 입은 옷이라든지 절모나 활 화살의 만든 제도는 사치스럽고 묘하나 괴상하게 생겨서, 그 모양을 다 쓸 수가 없다. 도주를 돌려보낸 뒤에 곧 홍수역을 보내서 회사를 했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46).

그들의 의복 문화를 자신의 기준에서 묘하고 괴상하다고 평가하며, “쓸 수가 없다”고 까지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일본의 정책적인 측면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자와 대화를 나누며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대와 교린은 국가마다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 손님을 접대하는 환인이라는 직책과 나라끼리 언어를 소통시키는 기상이라는 벼슬은 옛날로부터 전해오는 것인데, 너희 나라는 어찌해서 유독 그렇지 못하고, 수호가 사사로이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가? …… 공물사신이 다닐 때는 왜어를 아는 자가 따라야 하고 통신사에게도 한학을 아는 통사가 따르게 하는 것은 곧 조정에서 깊이 생각하고 원대한 계획에서 나온 일이다. 수호라는 왜인이 통역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뜻이 있어서였던가? 다만 공사로 하지

않고 사사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83-385).

그는 조선의 사대교린 외교를 기준으로 일본의 한학 통역관의 부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희 나라는 어찌해서 유독 그렇지 못하고”와 “사사로이” 같은 표현을 통해 일본의 정책이 사대교린의 기본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들어 낮추어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학 역관인 자신이 일본에 통신사로 동행한 것에 대해 조선의 조정이 “깊이 생각하고 원대한 계획에서 나온 일”이라고 높여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높여서 보는 듯한 시각은 왜인 선비가 일본의 예법에 대해 써서 보여주며 조선의 예법에 대해 묻고 답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왜인 선비가 예법을 가지고 물어보기를 조선에서 보통 쓰는 예법도 비슷한지를 물으니, 내가 그 쓴 것을 보니 모두 추하고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그 끝에 큰 글씨로 쓰기를,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는 예법은 모두 주문공의 《오례의》를 좇아서, 심지어 하인 같은 천한 자라도 이것을 좇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공이 만일 이것을 알고 싶거든 주자의 예를 상고하면 그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했다. 그 왜인은 부러워함을 이기지 못하여 공경함을 표하고 돌아갔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97).

중국의 예법을 따르며 하인까지도 따르는 조선의 예법에 대해 왜인이 부러워하고 공경함을 표한다고 표현하며 예법에서까지 조선의 우세함을 드러냈습니다. 김지남은 은연중에 일본을 낮추어 보는 모습 외에도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모습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진 스님 토목자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하필이면 친척을 떠나고 조상의 무덤을 버린 채 천만 리 바닷길을 건너 맨발에 이빨을 까맣게 물들인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와서 머리 깎고 관을 벗고서 구차스럽게 80 여 세까지 산 것은 무슨 마음에서였을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85).

라고 토목자가 일본에 와서 정착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본인들을 “맨발에 이빨을 까맣게 물들인 사람들”이라고 칭하면서 천하질서 아래에 만연했던 문명 대 야만의 구조에 왜를 야만인으로 대입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김지남은 일본을 저평가하면서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었으며 예절의 측면에서도 조선보다 나은 점이 있었음을 서술합니다. 특히 그는 사행원들과 역참들을 방문하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대저택들과 화려한 장식에 대한 서술을 할 뿐 아니라 사치스러운 정도의 대접에 대해서도 서술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태수가 문안하는 거시안 참관이 음식을 준비한 것이 역참마다 비슷하였지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이나 접대의 정성스러움은 왜경에 가까울수록 더욱 융숭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다 열거하지 못하고 다만 목격한 것만을 기록하였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72).

이 외에도 김지남은 아름다운 저택들이나 자신이 대접받은 상황과 차려진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민족·문화적으로 무시했던 일본에서 성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은 일본이 비교적 경제적 안정을 이룬 것에 기인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에는 일본의 기름진 땅이 일조했습니다.

지나는 길에는 풍년이 들었는데, 높은 데 올라 내려다보면 논밭의 경계가 분명하여 천 리나 되는 기름진 들판이 마치 바둑판을 펴 놓은 것과 같았다. 옛날 정전의 제도가 이러한 것이 아닐지 알 수가 없다. …… 땅이 기름져서 주위 4 백리 땅에는 풍년이 들지 않는 해가 없다고 한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77).

일본의 경제적 발전은 사회기반시설에서도 나타납니다. 김지남이 대접을 받는 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히 서술된 부분은 이러한 일본의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한 것입니다. 김지남은 특히 대판 하구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집들 중에는 물을 향해서 문을 낸 데도 있고 물을 끌어들여서 항구를 만든 뒤에 그 안에 수각을 짓고, 수각 밑에 누선을 띄워 두기도 했으니, 곧 배를 놓아두는 곳을 만든 것이다. …… 또 두세 곳에 큰 부교가 호수 위에 세워졌다. 기둥과 들보가 견고하고 튼튼하며, 제도가 웅장해서 위에는 수레나 말 탄 사람이 열을 지어 다닐 만하고 아래에는 배가 지나갈 수 있다. …… 시가로 들어가니 거리의 넓이가 겨우 한 길밖에 되지 않지만 갈림길들은 모두 우물 정 자를 이루어 모가 지고 반듯하여 사방을 바라봐도 모두 통해 있다. …… 대체로 성지의 견고함과 배의 정밀함과 누각의 웅장하고 화려함과 사람들의 번성함이 너무나 놀라워 중국의 소주나 항주를 보기 전에는 아마 이곳을 제일이라 하겠다. …… 대판은 일본의 큰 도시로서, 본래 수길의 옛 도읍터다. 웅장하기가 비할 데가 없는 곳인데 그 뒤부터 관백의 장입으로 된 곳이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65-366).

일본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던 김지남이 웅장하고 번성했다고 표현하며, 중국의 도시들과 비교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에 지어진 집에 있는 수각이나 수레와 말이 다닐 수 있는 견고한 부교를 통해 일본인들의 실질적이면서 계획적인 시설에 김지남이 감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선 통신사와 일본 국민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날 때는 자신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러한 일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모습에서도 김지남의 이중적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김지남은 일본인들의 질서의식에 대해 관찰하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맨발에 이빨을 까맣게 물들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일본 사람들에 대해 칭찬을 했다는 점에서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품천에서 경도 까지는 30 리 거리인데 인가가 뻣뻣하고 큰 집들이 즐비하다. 거리와 길은 넓고 반듯하게 탁 터졌고, 길가 좌우에는 대나무로 난간을 설치하여 구경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했다. ……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은 감히 어른의 앞을 가리지 않으면서 파리나 고슴도치의 털처럼 모여들어서, 사람들의 얼굴로 장막을 이루었으니 그 광경을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떠들지 않고 조용히 꿇어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80).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길을 갈 때에 중하관 등 앞서 인도하는 자들이 말을 타고 달아 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한 말이 말의 수가 항상 부족 하였다. 또 길을 가는데 차례를 잃고, 도리어 왜인들을 때리고 욕하는 자가 있기도 하다. 이런 일은 비단 왜인들에게 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기강이 해이해진 까닭이기도 했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8, 371).

김지남은 일본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조용할 뿐 아니라 그들이 조선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낫다고 까지 표현합니다. 김지남은 이렇듯 정치·문화·지적 수준을 저평가하면서도, 일본의 경제 발전과 질서의식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시각은 17-18 세기의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천하질서의 위계적 구조에서 기인되었으며, 특히 그가 한학 역관으로 지내며 중국어와 중국을 중심으로 공부해서 극대화 되었을 것입니다.

## 마치며

한 학기 동안 사랑방을 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것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론들은 하나의 렌즈와 같아서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그 사건도 달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규슈 답사를 하면서도 일본의 시각으로 서술된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답사 보고서의 주제를 정하면서도 《해행총재》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김지남을 만나게 된 것도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인물들과 달리 한학 역관이자 중국과 관련된 업적들을 주로 남긴 김지남이 일본을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이번 보고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남의 시각이 드러난 《통문관지》와 <동사일록>을 분석함으로써, 17-18 시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와 이를 바탕으로 국가들간의 위계적 구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히 김지남이 조선을 천하질서 내의 2 인자로 보았고, 일본을 조선보다 “중심”에서 멀거나 자신들보다 위계적 구조에서 하위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화이론을 제시하여 자신들만의 국제질서가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의 위계 구조에서만 일본을 바라보았던 김지남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시 시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남이 천하질서를 통해서 일본을 저평가했던 모습과 일본이 자신을 피해자로만 서술하는 모습 등 편협한 시각은 저에게 한 가지 렌즈로만 보는 것의 한계이자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합이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류박물관에서 나와 저희는 나고야 성터로 향했습니다. 숲길을 지나 언덕에 다다랐을 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 장관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희는 답사 둘째 날 마지막 일정을 마쳤습니다.



▲ 나고야 성터에서 사랑방 11기 일동

## 참고문헌

- 강재언. 2005.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이규수 역.  
파주:한길사.
- 김양수 외. 2008. 《조선후기 외교의 주인공들》. 서울: 백산자료원.
- 민족문화추진회. 2008. 《(국역)사행록 해행총재 제 9 권》.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상각. 2011. 《조선역관열전: 입은 천개의 칼을 지녔다》. 파주:  
서해문집.
- 이용희. 1970.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신동아> 8 월호.
- 이용희. 1977. “사대주의: 그 현대적해석을 중심으로”. 서울:서문당.
- 조규익, 정영문 엮음. 2008. 《조선통신사 사행록연구총서》. 서울:  
학교방
- 후마 스스무. 2008. 《연행사와 통신사》. 서울: 서신원.
- 통문관지 국역 홈페이지. <http://www.koreaa2z.com/viewer.php?seq=43>  
(검색일: 2019.01.06)

# 시모노세키조약의 비밀: 액자식 구성으로 분석한 조약체결 과정 \_일청강화기념관

손상용

서울대학교

## 들어가며

사랑방 11기 답사의 여정은 일청강화기념관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에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좀 더 역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즉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과정을 액자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액자식 구성이란 액자 내부의 조약 체결 과정과 더불어 외부에서 조약을 체결했던 행위자들이 작성한 외교 문서를 중심으로 행위자의 숨겨진 인식과 협상 전략을 복원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적 능력의 부족과 언어적 제약으로 모든 외교 문서를 참고할 수는 없었지만, 청나라 이홍장과 일본 이토 히로부미, 무쓰 무네미쓰의 숨겨진 인식을 추적하는 겸손한 출발점이라고 작은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던 1894 년부터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895 년 12 월까지로 설정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주로 당대의 1 차 외교 문헌을 사용했습니다. 청나라 이홍장의 인식을 복원하기 위해 청나라의 외교문서와 더불어 이홍장과 총리아문 사이에 오갔던 외교 전보를 참고했습니다. 일본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의 인식을 복원하기 위해 외교 비망록인 『건건록』과 당대의 일본 측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또한 2 차 문헌을 통해 1 차 문헌을 보완하고자, 이승만 대통령이 당대 사료를 취합하여 작성했던 『청일전쟁』과 중국 및 일본에서 발간된 역사서를 참고했습니다.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던 과거로 돌아가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첫 만남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 장면 #1 이토와 이홍장의 첫 만남

1895 년 3 월 20 일 청나라 전권대사로 임명된 이홍장은 양아들 이경방을 포함한 참찬 11 인을 데리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합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가 서기관 6 명을 대동하여 이들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홍장과 이토의 첫 만남은 1885 년 천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0 년이 지나서 재회한 양국 외교의 두 거인이 만나 나눈 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토: “중당(이홍장)”이 이번 황제의 명을 받드는 직책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그치고 정의가 다시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화친을 이루면 두 나라에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이홍장: “아시아에서 우리 두 나라가 가장 가깝고, 또 글이 같습니다. 최근에 잠시 다투었는데, 이것은 서로의 이로움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것이며, 일본도 결코 이롭지 못합니다. 서양 사정을 보면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웃 나라와는 우호적으로 지냅니다. 우리 두 나라도 서양 사정을 참고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합시다.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되면 아시아 황인종이 유럽 백인종에게 잡아 먹히고 말 것입니다.

이토: “중당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10 년 전에 내가 중당에게 권한 바 있습니다만, 어찌하여 오늘까지 정치를 한 가지도 개혁하지 못했습니까?”

이홍장: “귀 대신은 저와 만난 후 귀국의 좋지 않은 제도를 일제히 고쳐서 오늘과 같이 발전했으니 진실로 부럽습니다. 우리 청국은 과거의 제도에 젖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10 여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참 부끄럽지 그지 없습니다.”

이토: “일본 국민은 청국 국민보다 다스리기가 더 어렵고, 또 의회가  
중간에 있어 처신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토와 이홍장은 양국 간 논쟁이 되었던 ‘전권위임장’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강화조약 체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협상 이전에 이홍장이 청일전쟁을 어떻게 인식했고, 청나라의 운명이 걸린 협상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려 했었는지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홍장은 청일전쟁을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일본이 유럽식의 육해군조직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동양의 황색인종도 서양의 백인 못지않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둘째, 청일전쟁의 패배로 청나라는 오랜 깊은 잠의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좋은 경험이다. 셋째, 일본과 청나라의 협력은 동양이 유럽 열강들에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홍장은 전쟁에서 피해한 청나라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고안했을까요? 여기에서 그의 탁월한 국제정치적 감각이 돋보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홍장은 청나라를 위해 일본과의 정전 및 화친 조약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합니다. 실제로 딸인 이경숙에게 보냈던 서신에서 이홍장은

“일본과의 조약을 상의하는 일은 절차탁마가 필요하나, 아직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며, 조정에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총서 또한 근래의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조정과 총리아문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김기효 2017).

무엇보다 이홍장은 서양 열강들을 이용하여 일본과의 협상에서 청나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협상에서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 서양 각국의 입장과 동향을 분석하며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이지요. ‘의화 및 정전에 관하여 총서에 진술하는 글’은 이홍장이 영국, 러시아의 사신과 만나 면담했던 내용을 청나라 총서에 보냈던 문서입니다. 동 문서에서 이홍장은 청일 전쟁에 대한 서양 각국의 입장을 살피며 조언을 듣고, 러시아 사신과의 면담에서는 만약 일본이 러시아 영토를 침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조선의 영토를 일본이 점유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물었다. 즉 이홍장은 서양국가들을 이용해서 일본의 과도한 협상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측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을 앞두고 어떤 인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본은 청일 전쟁의 승세를 잡아 베이징으로의 진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일본은 전승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나라에 대하여 유리한 강화조건을 제시하려 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일본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서양 열강들의 간섭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경 진군 여부를 두고 군부를 대표하는 육군대장 야마가타 아리모토와 정치부를 대표하는 이토 히로부미는 큰 갈등을 빚습니다. 이토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청국이 아니라 서양 열강들과 강화조약을 협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는 이토의 안전을 받아 들이게 됩니다.



▲ 이토와 무쓰의 흉상

서양 열강의 간섭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내각에서 작성한 강화 조약 초안을 구미 각국에 미리 통보할 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에서도 나타납니다.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는 강화 조건의 내용을 미리 암시하여 구미 각국의 묵인을 얻어내자고 주장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의 조건을 청일 두 국가 사이에만 제한하여 제 3 국이 사전에 간섭할 여지를 제거하자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토

총리의 채택되었지요. 이와 같은 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청나라에 대해 강경한 강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욕망과 국제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서양 열강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중적 인식을 보입니다.



▲ 협상 당시를 복원한 그림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시작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과정에서 무쓰는 이홍장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쓰는 이홍장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제일인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홍장의 논조가 일본의 동정심을 끌어내면서 간간이 칭찬과 혹평 혹은 악설까지 섞어가면서 패전국인 청나라의 굴욕적인 지위를 덜려고 노력하는 지략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무쓰 무네키쓰 1994).

## 장면 #2 이홍장 피격사건과 협상의 전환점

1895 년 3 월 24 일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제 3 차 회담이 개최됩니다. 기존의 두 차례 회담에서는 ‘휴전논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하고, 논의는 ‘강화조약 체결’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제 3 차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홍장이 한 일본인 낭인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대에 발간되었던 영자신문은 급박했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홍장이 회의장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일본 사람 한 명이 사람들의 무리에서 뛰어나와 권총을 발사하여 이홍장을 저격한 후 달아나다 순경에게 붙잡혔다. 이홍장은 탄환이 왼편 눈 아래 깊이 들어가 중상을 입었다. 가마꾼이 자객을 보고 놀라 움직이지 못 하고 방황하자 경찰들이 칼을 휘둘러 구경꾼들을 모두 쫓은 다음 가마를 호위하여 여관에 도착하여 침실로 업고 들어가자 이홍장이 혼절하여 인사불성이 되었다.

위의 사건은 시모노세키 조약 협상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천황이 직접 조칙을 내리며 일본 황실의 사과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같은 사건을 청나라와 일본은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책을 설계했을까요? 먼저 이홍장의 인식을 복원해보고자 합니다. 이홍장은 피격 사건이 협상 국면을 전환하고,

일본이 내세운 과도한 조건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피격 직후 “내 비록 목숨을 버릴지라도 국사에 도움이 된다면 이 목숨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인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자 “지금 나라에 중요한 일이 많아 한 시라도 강화를 지체할 수 없다. 내 어찌 사사로운 일로 지체하여 국사를 그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홍장의 예측과 같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배상금을 2 억 냥으로 감축하고 미루어 왔던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 이홍장이 피격되었던 길 안내표시

그렇다면 일본은 같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을까요? 요약하자면 일본은 해당 사건의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적 파급력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청나라에 대해 조금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변화는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무쓰는 국내적으로 이홍장에 대한 연민의 태도가 급증한 것을 바탕으로 국내적 여론이 세계적 여론으로 확장되어 협상이 난항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무쓰 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의 주요 관료들도 공유하고

있던 것이며 그들은 동 사건이 일본의 국가 이익에 큰 해를 끼칠 사건이라고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크게 화를 내며 “그 죄인이 강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나를 쏘는 것이 옳지 어떻게 청국 사신을 살해하려고 했는가. 강화는 내가 제안한 것이며, 청국 사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번 일은 비록 미친 사람이 저지른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었다. 만약 나를 죽였다면 문제가 오히려 적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군부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이 범인이 국가의 대사를 생각하지도 않고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책상을 치고 통곡했다고 한다 (이승만 2015)..

국제정치적으로 일본은 이홍장 피격사건이 서구 열강들의 간섭을 촉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라고 인식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무쓰는 현재와 같은 의례적인 대응은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휴전문제’에 대해 일본이 양보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무쓰의 제안은 이토의 승인으로 이어지고, 회담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강화조약 체결의 ‘조건’과 ‘기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래는 무쓰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글입니다.

만약에 이홍장이 단순히 그의 신체상의 부상을 구실로 중도에 귀국하여 통렬하게 일본 국민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교묘하게 구미 각국을 유도하여 재차 그들의 중재를 요구하게 되면, 적어도 유럽의 두서너 강국의 동정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만일 유럽 강국들의 간섭을 초래하게 된다면 우리의 청국에 대한 요구도 또한 많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현재 교전하고 있는 양국 중 특히 승자인 우리 국내에서 적국의 사신을 대우하는 데 상당한 보호와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은 국제공법상의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만에 하나 사회의 감정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단순한 어떤 이론으로 무마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음은 물론이었다 (무쓰 무네미쓰 1994).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쓰는 서양 열강들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1895년 3월 24일에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등의 해외 대사관에 상황을 설명하는 전보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국제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동정 여론의 형성과 양국의 협상에 외국이 개입하는 것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결과적으로 이홍장 피격사건은 청나라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상당 부분 감축했고, 합의되지 못 했던 휴전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즉 총알 한 발이 일본과 청나라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 장면 #3 협상의 난항과 숨은 전략

제 4 차 회담은 이홍장의 치료를 고려해서 일정보다 연기된 후 개최되었어요. 제 4 차 회담에서 일본은 청나라에 배상금, 영토 할양 그리고 일부 지방에 대한 일본의 점거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청나라는 일본 측이 제시한 과도한 배상금과 더불어 서양 강대국들이 영토 할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들어 거부하죠. 하지만 이토는 일본이 제시한 조건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음을 강하게 전달하며 이홍장을 압박하고 결국 아래와 같이 제 5 차 회담이 개최됩니다.

#### <장면#4 제 5 차 회담>

이홍장: 황제로부터 지(旨)를 받았는데, 본 대신에게 이번 일을 헤아려 처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처리하기 어려우니, 귀 대신이 나를 대신하여 헤아려 주기 바란다. 나는 실로 가늠하기 어렵다.

이토: 내 처지도 중당과 비슷하다. 중당은 중국에서 지위가 높아, 누구도 지위에 도전할 수 없다. 본국은 의원의 권한이 중요하여, 내가 실을 잘못 처리하면 곧바로 비판을 받는다.

이홍장: 내가 일본의 이토 수상과 친분이 좋다며, 작년에 나를 여러 차례 탄핵하였다. 지금 당신과 의화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 어찌 친분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이토: 시대의 형국을 그들이 몰라서 중당을 탄핵한 것이다.

이홍장: 이처럼 모진 조약에 서명을 하면, 또한 반드시 나를 욕할 것이다. 어찌하란 말인가?

이토: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처럼 중요한 일은 중국에서는 중당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이홍장: 분명 조약 체결 후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귀 대신이 나를 대신하여 잘 생각해서, 배상금과 영토할양 두 가지에 대해서 양보를 해 줄 것을 청한다.

이토: 처음에도 말했지만, 조금의 양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홍장: 일전에 헤어질 때 5천 만의 감액을 청했는데, 그때 귀 대신은 그럴 의사를 보이지 않았는가? 만약 양보가 가능하다면, 전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토: 이미 양보를 하였다.

(중략)

이홍장: 일본 병사들이 철수한다면, 의약은 반드시 비준될 것이다.

이토: 만일 비준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홍장: 비준이 되면 즉시 전보로 통지하겠다.

이토: 전보는 영어로 하되, 비밀부호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환약의 시기와 장소를 정해주어야 한다. 의약 체결 15 일 이내로 청한다.

이홍장: 15 일로는 부족하고, 1 개월로 하자.

이토: 우리 병사들은 너무도 많아서 1 개월을 머무르기에는 너무 길다.

이홍장: 1 개월이 아니면 어렵다.

이토: 3 주로 하자.

위에는 제 5 차 회담의 녹취록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협상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이홍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인식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정치적으로 이홍장은 조약 체결의 성과와 관계 없이, 자신에 대해 돌아올 국내정치적 비난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청나라 내부에서 이홍장의 최대 정적이었던 양강총독 쟁즈퉁은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천하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청나라 백성들의 비판 여론은 폭발했으며 심지어 반제국주의와 반기독교 투쟁으로 변질되고, 랴오난과 타이완 백성들은 기독교회당과 천주교회당을 방화하기도 합니다(왕사오팡 2018).

그렇다면 이홍장은 국내정치적 여론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이홍장은 제 5 차 회담 이후 이토가 제시한 4 일 기한부에 대해 청나라 총리아문에 여러 차례 전보를 보내며 최종적으로 이토가 제출한 수정안에 조인해도 될 지 혹은 조정에서 다른 훈령을 줄 지를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이승만 2015). 아래 이홍장과 총리아문 사이에 오갔던 전보들을 확인한다면,

이홍장이 최종적인 조약 체결의 승인권을 조정에 넘기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급박함을 전달하고자 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국내정치적 여론의 반대를 인지하고 있었던 이홍장의 입장에서 비록 전권위임대사로 파견되었지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상황을 조금이나마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 <이홍장과 총리아문 사이의 전보 재구성>

4월 11일 (이홍장 →총리아문)

“어제 이토와 면담했으나 그 어투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으며, 오늘 또 송치되어온 서한은 최종적인 결의를 표시한 것 같다. 따라서 다시 얼마만큼 양보할 것인가를 속히 혼시해주기 바람.”

(총리아문 →이홍장)

“이토의 재촉이 심한 듯하니 만약 다시 협상할 길이 없으면 귀관은 한편으로 그 뜻을 전신으로 보내주고, 한 편으로 조약을 체결할 것이나, 귀관이 명령을 받고 나서 안심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결코 파열의 국면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게 하라”

4월 14일 (이홍장→총리아문)

“내일 오후 4시에 만나 의정할 것이다. 만약 이 기일이 지나면  
담판은 순조롭지 못하게 될 것이며 사태 또한 매우 중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요구대로 승낙한다면 경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일이 의외로 변질 수가 있으므로, 이제 전훈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총리아문→이홍장)

“먼저 훈령한 것은(12일 총리아문이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어  
일본 측 요구 중 아직 더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내용을  
가리킴) 그 뜻이 일본이라도 다투게 되면 그 일본에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었지만, 더 이상 협상을 바꿀 수 없다면  
이전에 지시한 훈령대로 조약에 조인하라”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이홍장은 시모노세키 조약의 비준 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다면, 주변 서양 강대국들이 개입할 여지를 조성해서 일본을 일정 수준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어요. 즉 위의 제 5차 회담 녹취록에서 이홍장이 조약의 비준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했던 해답이 여기 존재해요. 실제로 그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전권대사로 파견되기 전부터, 청나라 내부에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였답니다. 1894 년(광서 20 년 9 월 14 일) ‘러시아 사신 객(略)과의 문답 요약 첨부’를 참고한다면 이홍장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김기효 2017). 이홍장은 중국 주재 러시아 사신 아르투르 파블로비치 카시니(Arthur Pavlovitch Cassini)와의 면담에서 일본과의 정전 문제에 대해서 “만일 객 대인이 귀국 정부가 일본 동경주재 러시아공사에게 명령하여 일본 외부와 상의토록 요청한다면, 더욱 직접적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과의 정전협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추진하고자 했어요. 동 문서에서 이홍장은 일본인을 “매우 교활하고 농간을 부리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일본이 서양 국가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한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이홍장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게 된다면 프랑스가 월남(越南)을 점령한 것과 같이, 추후에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조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 사신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서양 열강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외교전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 마무리하며,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본과 청나라를 대표하는 두 외교 관료인 이토와 이홍장에 의해 조인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은

동아시아 질서에 큰 변곡점을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죠. 첫째,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둘째, 청나라가 통치하던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그리고 평후 제도는 일본에 양도됩니다. 셋째, 청나라는 일본에 2 억 냥을 보상했으며 양국 간의 무역을 규율하는 새로운 근대적 조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결론을 대신하여 마지막 단락에서는 1 차 문헌의 부재로 심도 있게 다루지 못 했던 조선의 인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은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시모노세키 조약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두 가지 1 차 자료를 참고해보죠.

첫째, 『대한계년사』는 고종의 인식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계년사 2 권 을미년(1895) 고종 32 편은 ‘독립경축일을 정하도록 지시하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조선이 완전한 독립을 얻어냈으며, 더 이상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종의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정교, 2004). 또한 대한계년사는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대해 패배한 이유와 시모노세키 조약의 중요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1895년 3월: 청나라의 전쟁 패배 이유>

청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연달아 패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18 개 성(省)의 영토를 지키는 신하들이 영토는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핑계대면서 북양(北洋)이 궤멸되는 상황을 앉아서 보고만 있었다.

하나, 관리의 일 처리이다. 청나라의 포대와 포함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쌓은 모래성과 흡사해서, 발로 차버리자 곧바로 산산이 부서져버렸다. 청나라의 해군과 육군은 진을 치고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군량은 급속히 떨어지고, 무기에는 이끼가 끼었다. 싸움터에 나서서는 배가 고파서 단지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생각만 품었다. 적을 마주 대해서는 무서움에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오로지 달아나 숨어서 목숨을 보존할 궁리만 했다.

하나, 수십 년간 정열을 들이고 20 개 성의 알짜배기만을 모아서, 비로소 갖추고 마련한 씩씩한 군대의 위용과 정예 무기를 하루아침에 모조리 적병에게 넘겨버렸다.

### <1895년 3월: 시모노세키 조약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이때에 청나라에서 파견한 대신 이홍장이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가 화친을 애걸했다. 일본은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 대신 무쓰 무네히메에게 명령하여 3월 23일 <양력 4월 17일이다> 시모노세키에서 회동을 갖고 조약을 체결토록 했다. 그 중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관 조선은 완전 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 <갑오년(1894) 10월 25일 청나라는 이미 성명을 통해 조선은 완전 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했다>.

제 2 관 청나라는 장차 봉천성 남쪽 지방 일대와 대만 전체 및 그에 부속한 여러 섬 그리고 팽호열도를 일본에게 떼어 준다.

제 4 관 청나라는 일본에게 군비 배상금으로 고평은 2억만 냥을 지불한다.

제 6 관 일본은 청나라 호북성 형주부 사시, 사천성 중경부, 강소성 소주부, 절강성 항주부에서 통상한다.”

4월 8일에는 강화조약을 비준했다. 얼마 안 있어 러시아·프랑스·독일 세 나라가 일본에 말하기를, “일본이 요동(遼東) <바로 봉천성 남쪽이다>을 점거하면 동아시아는 영원히 평안치 못할 것이니, 청나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했다. 일본이 그 말대로 따랐으며, 청나라는 은 3천만냥으로 보답했다.

둘째, 1895년 1월 7일에 반포된 ‘홍범 14 조’는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명시하며 종묘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선포한 문서입니다. 홍범 14 조의 도입부에는 “지금 이후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나라의 기운이 융성하며 신민이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누리서 자주 독립의 기초를 완전하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며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독립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기점으로 청나라의 천하질서를 탈피하여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인식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은 일본의 한국 병합을 위한 야욕이 드러난 결과물이었죠. 즉 일본은 ‘조선의 지위’를 문제 삼아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서 조선을 병합하고자 했던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갑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제 1 조는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무릇 조선의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일체의 것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위한 첫 단추였던 것이죠. 홍범 14 조도 조심스럽지만 한 편으로는 한국의 자주적 개혁이 아닌 일본의 각본에 의해 추진되었던 개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홍범 14 조의 입안 과정에서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와 내부대신 박영효의 입김이 상당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경쟁 속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의 의미를 완벽하게 오판했어요. 동시에 조선은 동아시아 질서가 청나라의 천하질서에서 일본의 근대 국제질서로 이행되어가는 역사

속에서 더딘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암울한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동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이 건축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청일전쟁 시기의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오판과 외교적 실패를 넘어 미중 세력경쟁 속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외교적 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청나라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무쓰 무네미쓰의 국익을 위한 치열한 외교적 협상과정은 외교 관료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생존을 걸고 협상하는 강대국 외교 관료들의 모습을 보며 중소국인 한국의 외교적 역량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1 세기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각축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관료가 되고자 하는 저는 일청강화기념관을 떠나면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 참고문헌

### 1 차자료

- 김기효. 2017. 《근대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 12 편》. 서울: 선인출판사.
- 무쓰 무네토키. 1994. 《건건록》. 김승일 역. 서울: 범우사.
- 이승만. 2015. 《쉽게 풀어 쓴 청일전기》. 김용삼, 김효선, 류석춘 역. 서울: 북앤 피플
- 정교. 2004. 《대한계년사 2 권》. 서울: 소명출판사.
- 왕사오팡. 2018. 《중국외교비사 1》.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제노베 볼피첼리. 2009.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 조선 땅에서 벌어진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충돌》. 유영분 역. 서울: 살림출판사.
- 천순천. 2006. 《청일전쟁》. 조양욱 역. 서울:세경출판사.

### 2 차자료

- 김경록. 2018. 《청일전쟁과 일제의 군사강점》.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석구. 2014. 《청일전쟁: 19세기 국제관계, 주요 전투,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 왕현중. 2009.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유인선, 김병준 외 9 명. 2014.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서울:  
위더스북

Little Archibald, 1903. *Li Hung-chang: his life and times*. London:  
Cassell.

# 새로운 듯, 새로운 게 없는 시진핑 외교사상

강애리

성균관대학교

## 들어가며

일본에 갔지만 답사 내내 중국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21세기 구상에 관한 발표를 준비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의 내레이션을 속에서의 중국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원폭기념관에서 일본의 가해와 피해 두 지점 사이에서 벌어진 아시아 국가들의 비극에서 중국이 떠올랐고, 사세보에서 마주한 과거 일본의 해군력에서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 격차가 생각났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에서 과거에 있었던 치열한 외교현장을 재현하면서 사랑방 11기 모두가 공감한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틈바구니에서 각자의 속내를 잘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중국을 공부할 한 사람으로 답사

일정 내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견학 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일청강화기념관 옆 가라토 시장에서 점심을 해결한 후, 후쿠오카로 향하는 버스에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로 향하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시진핑 외교사상”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진핑 외교사상’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최근 시진핑 사상이 중국의 주요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국가체제인 중국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중국공산당의 행사와 내부문건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17 년 10 월에

있었던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 차’)는 시진핑 1 기 정부를 정리하고, 2 기전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산당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당헌(党

章)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이하 ‘시진핑 사상’)이 추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모든 공산당원들의 입당, 승진 시험에서도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만큼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 통치철학으로 ‘시진핑 사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2020-2035 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5-2050 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에 관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해왔는데, 이를 앞으로 ‘시진핑 사상’을 바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시진핑 외교사상?

그럼 도대체 19 차의 시진핑 외교사상이란 무엇일까요? 시진핑 외교사상의 그 내용은 ‘신형국제관계(新 型 國 際 關 係)’와 ‘인류운명공동체(人 類 運 命 共 同 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계속해서 외교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19 차에 밝혀진 이 두 개념은 기존 개념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국제관계는 제 18 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신형대국관계’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그 동안 언급해온 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등을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인류운명공동체 역시

주변외교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언급되던 운명공동체 개념을 확장시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스스로의 부상이 양날의 검으로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세련되게 외교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된 이후 계속해서 외부의 우려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외교담론을 계속해서 만드는 등 이전보다 고차원적이고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19차가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에 중국이 제시하던 논의와 약간의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중국위협론의 주요 근거로 쓰이던 외교담론과 개념들의 강도를 약화시켰습니다. 가령, 18 차에서 결단코 양보하지 않겠다던 핵심이익에 대한 강도를 줄였습니다. 또한, 주변국과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냈던 해양강국담론 역시 기존보다 언급하는 분량을 줄여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를 당헌에 추가한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차에서 시진핑 1기 정부의 중요 성과로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창립, 실크로드 기금 설립, 제 1 회 일대일로 포럼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내용 외에도 일대일로 자체가 당헌에 포함된 것입니다. 당헌이란 문건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시진핑 집권 2 기에서도 일대일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심지어 당헌에 추가하여 그보다 장기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운명공동체의 경제적 차원을 담당하면서 다른 부분에 비해 현실적인 정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일로가 시진핑 사상을 현실화하는 하나의 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주목할 문건이 이후 있었던 2018년 6월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會議, 이하 ‘외사회’) 문건입니다. 본래 외사회 의 문건이 일반적으로 비공개인데도 외교정책을 노정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이번 회의가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19차에서 다루어진 시진핑 외교사상을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외교사상(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外交思想, 이하 ‘시진핑 외교사상’)’으로 명명하여 공식적으로 중국 외교의 지도사상으로 지위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모든 외교업무의 주요 기준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며, 해당 문건을 통해 시진핑 외교사상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19차 보고와 6월 외사회 의 문건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결국 시진핑 외교사상의 내용이 그렇게 새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차 보고에 비해 6월 외사회 의 에서 물론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존의 외교담론의 외연이 넓어진 것일 뿐, 내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19차 보고에 비해 6월 외사회 의 의 방점은 ‘당 중심의 외교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시진핑 사상이 자리한다.’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할 점은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9번 항목에서 “국가 핵심이익을 최저선으로 하는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견지한다.”고

19차에서 약화시켰던 핵심이익에 대한 강조를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차보고에 비해 강한 강도로, 그전의 기존 논의와 맥을 함께합니다. 즉, 6월 외사회회의까지 함께 시진핑 외교사상을 파악하는 중요문건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이 새로운 사회주의 모순단계에 접어들어 새로운 사상적 국면에 접어든다는 전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는 변함없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시진핑 외교사상의 속내?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겼고, 아래의 질문들을 마주하니 결국 시진핑 외교사상이 나온 배경과 이를 실현할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1.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마치 새로운 외교담론인 것처럼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핵심이익, 해양강국담론 등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관한 담론 구성을 방해하던 개념들에 대해 언급한 정도가 공개문건(19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고 비공개문건(외사회회)에서는 다시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연동한 외교담론을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위협론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이를 인식하면서 평화적 부상을 지속 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핵심이익, 주권, 안보 등에 대해 강조점을 부여 하고, 외교정책 역시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중국의 부상이 평화로울 것이라는 주장에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력의 부상은 결국 영향력의 확대를 자연스럽게 가져오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에 따라 계속해서 언급된 이러한 이중적인 내용(평화적 부상에 대한 내용과 주권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 두 내용 간의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이 말한 외교담론의 전제에서 공통적으로 ‘국제관계의 민주화’의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이 밝혀온 바에 따르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현재 국제정세를 공평하지도, 정의롭지 않은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구형(舊型) 국제관계에서 중국은 신형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로 넘어갈 것을 말하는 데, 그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민주화입니다. 모든 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모든 외교담론의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19차와 6월 외사회회의 모두에서 이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위해 중국은 국내외 정세의 현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외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외교사상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기준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중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현재의 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일대일로의 구체화 등 다른 국가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관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위협론의 대응으로 위의 전제를 깬 외교담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주변의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연동한 외교담론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핵심이익, 주권, 안보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역시 중국이 판을 새로이 만들 만큼의 힘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놓고 이익만을 취할 수도 없어 담론과 정책 모두 이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차 보고의 경우, 외교담론의 내용 그 자체가 평화적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대내외의 청중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핵심이익, 주권, 안보에 대한 강도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중국 스스로 이익추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의 자유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6월 외사회에서 다시금 핵심이익, 주권, 안보를 강조한 것은 전적으로 당내 청중을 대상으로 했으며, 회의 전후의 외교맥락에서 이익추구적인 측면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2018년 7월부터 가시화되었던 미중무역전쟁을 염두에 둔 회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사회회가 열렸던 6월 말부터 미중무역전쟁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외사회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대부분 대외업무 담당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을 내리거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령, 외사회회에서 언급된 10가지 항목들 중 1번 항목 “당 중앙 권위의 통솔의 근간으로 삼아 대외업무에 대한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견지한다.”와 9번 항목 “국가핵심이익을 최저선으로 삼아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지속적으로 수호한다.”는 내용 모두는 목전의 미국과의 무역전을 고려한 결과라고 추측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극히 일부지만, 앞뒤 정황을 보았을 때 그 내부회의에서 상당한 결의를 다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마치 새로운 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그 이름을 시진핑 사상이라고 잡고, 나아가 당헌에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더 지켜볼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오히려 시진핑의



▲마치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칼레이터같다며 수다를 떨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말로써 권위를 선함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중국 공산당 역사에 있어 시진핑 집권 2기 정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 중국은 매해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2018년은 개혁개방 40주년,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2020년은 두 개의 백년 중에 첫 번째 백년인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 완성되는 해, 마지막으로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의 역사적 정당성과 함께 업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특히 2050년까지 달성할 미래 목표에서 지금이 중요한 단계기 때문에 2018년은 중국에 있어 새로운 지도사상이 제기되어야 할 적기였습니다.

이에 반해, 시진핑이 1기 집권에서 반 부패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정당성을 일부 확보했지만, 사실 다른 지도부에 비해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부족합니다. 이번 19차 보고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추가하여 당장 수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가장 큰 행보가 6월 외사회회의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는 점에서 결국 중국은 지도사상의 반열로 올린 해당 사상의 내포를 채워가는 데 있어 외교를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황에서 중국의 굴기에 역제하는 미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 기저의 시진핑 외교사상을 6월 외사회회의에서 공식화한 것은 결국 국내적으로 시진핑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가오는 무역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응은 국내적으로 권위를 확보하기엔 충분했다 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미중무역전에서 결국 중국이 밀리는 형국이 되었지만, 공식화된 시진핑 외교사상이 반영된 첫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후 사상이 외연이 넓은 만큼 다른 외교행보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나가며, 시진핑 외교사상의 실현?

중국이 새로운 사회주의 모순에 빠져있다는 현실인식을 일면 타당합니다. 스스로의 외교사상이자 외교지침에 주변국가를 연동했는데, 구체화될수록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에서 전제하는 국가관계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위협론의 해소, 주변국가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힘 자체가 커지는 것입니다. 중국 국력이 만약 커진다면, 힘을 사용해 경제적, 군사적 규범과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주변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야기해왔던 국제관계의 민주화가 전제된 운명공동체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오히려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의 증가로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사력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전제해도, 중국 위협론을 해소하기 전에 중국이 마주한 주변국들을 모두 방어하는 목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해야 하며, 이에 잉여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적게 확보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 것은 중국 대내외에서 나오고 있으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경제적 차원인 일대일로 전략 역시 이 저성장과 관련된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힘의 증가가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중국의 권위가 증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이 권위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명국가였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 모두의 발전이며,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그렇게 나쁜 국가가 아니라고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중국 역시 근대 국민국가라는 점이 오히려 중국위협론을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명국가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면서도, 동시에 미중무역전과 주변국가와의 해양문제 등 스스로만의 국가이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중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을 연동할 만큼 행동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시점에서 중국의 외교담론과 외교정책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면, 중국은 결국 새로운 외교담론을 제시해 기존의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담론과 정책간의 불일치, 이 불일치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를 밀어붙일 힘의 부족으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50년을 감히 예상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2050년까지의 과정은 현재와 비슷하게 이 과정은 공동의 이익(평화적 부상)과 중국만의 이익(중국위협론)의 사이에서 조정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미중무역전을 목전에 두고 국내적으로 외교담론에서의 방점을 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엄청난 수준의 힘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구조의 판을 바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은 기존 거버넌스의 빈틈을 공략해서 중국식의 무언가로 채워나가면서 동시에 핵심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에 시진핑 외교사상과 그에 따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는 앞서 언급한 두 지점 사이에서 정책의 초점을 조정하는 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진핑 스스로는 두 개의 백 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중국이 신형대국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의 중국 외교담론과 정책이 공동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 사이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언급한 것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지라도, 일단 당헌에 포함되어 중국외교의 중심에 있을 시진핑 외교사상 내용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담론의 확장된 내포가 과연 채워질지, 채워진다면 무엇으로 채워질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장기적 목표와 시기마다 있는 시의적 목표를 분리하고 이를 담론 해석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

같고, 이 때문에 중국을 계속 관찰할 저도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랑방에서 배운 동주의 질문 ‘우리 겨레는 왜 이토록 취약한가?’와 답사 내내 작고 연약했던, 국제정세의 세력경쟁을 오판했던 ‘조선’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랑방에서 내내 배웠고, 이번 중국의 외사회에서도 언급했듯, 현재의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마주한 여러 변수들이 만들어낸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는 자세로 국제정세와 외교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답사 마지막 날, 가라토 시장 옆에서 사랑방 11기

## 참고문헌

### 1 차 자료

중국공산당 제 18 차전국대표대회, <http://www.gov.cn/18da/>

중국공산당 제 19 차전국대표대회, <http://www.gov.cn/zhuanti/19thcpc/index.htm>

중국정부 국무원 국무회의, <http://www.gov.cn/guowuyuan/cwhy/20180613c14/index.htm>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제 1 차회의, <http://cpc.people.com.cn/BIG5/n1/2018/0515/c64094-29992327.html>

### 2 차 자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8.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 서울: 지식공작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8. 《시진핑사상과 중국의 미래》, 조영남 편, 서울: 지식공작소.

Swaine, Michael D. and Tellis, Ashley J. 2000.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Wahsington D.C: Rand.

Swaine, Michael D.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44, July 2018.

Swaine, Michael D. “Chinese Views on Foreign Policy in the 19th Party Congress”,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55, Jan 2018.